

Kangwook Lee & Seungmook Choi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Regional Tourism Industry  
: The Case of Gangwon and Jeju Regions

##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이강욱 · 최승묵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 서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의 가속화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광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5일 근무제 실시 확산, 2004년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국민의 여가활용 및 여행패턴이 변화하여 지방을 여행하는 관광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산업은 국가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증대하면서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객관적인 평가와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지역 관광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11.3%, 지역 고용의 20.1% 수준이며, 제주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25.5%, 지역 고용의 33.2% 수준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두 연구대상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광산업을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지역 문화 관광자원의 특성과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광 관련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과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과 연구자문위원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이영욱



## 요약

###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관광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음
- 관광객의 지출액은 고용·소득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선도산업으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임.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계획 수립은 자칫 지역경제의 낙후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음
-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 지역경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함

#### 2. 연구 목적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지역 내 타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평가
  - 연구대상지역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 연구대상지역 관광객 지출액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승수를 종합하여 연구대상지역 전략산업 선정

#### 3. 연구 방법

-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연구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2차 자료 조

- 사를 실시하고, 원내협의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전국산업연관표(2000년 기준)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입지상계수법, 공급수요균형법, RAS방법, 가중치접근법 등을 검토하고 입지상계수법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후 분석

## II. 연구 주요 내용

- 관광산업 분류 체계 구축 및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체계 설정
  - 관광산업 분류에 대한 관광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기준 비교
  - 입지상계수법을 적용하여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연구대상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비교·분석
  - 연구대상지역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 지역 전략산업 선정기준 설정 및 전략산업 선정
  - 효율성지수,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 개발
  - 연구대상지역 전략산업 선정
- 지역산업연관분석 및 관광현황 분석을 통한 연구대상지역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제언

## III.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

### 1. 관광산업 분류

- 본 연구에서는 세계관광기구(WTO)가 작성한 공급측면 관광활동별 경제분류인

SICTA(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산업을 10개 세부 산업으로 구성된 산업집합으로 분류

<표 1> 세부 관광산업

구분	세부 관광산업
관광산업	숙박, 식음료, 여객운송, 운수보조, 차량임대, 여행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희, 소매

## 2.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투입계수는 각 산업별 생산액을 활용한 입지상계수법을 적용하여 도출
- 연구대상지역 각 산업별 생산액은 통계청의 산업 세세분류 생산액 자료를 가공하여 도출
- 각 지역의 부가가치부문은 그 구성비율이 전국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부문 구성비율과 동일하다 가정하고 비례배분하여 도출

## 3. 분석체계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관광산업의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를 산업간·지역간 비교분석
-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 연구대상지역의 관광객 지출로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효과 분석
  -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유발효과의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및 고용창출 기여도 분석
- 연구대상지역 전략산업 선정
  - 각 산업의 생산·소득·고용·순간접세유발승수의 순위를 평균한 효율성 지수

와 연구대상지역 각 산업 생산액 및 취업자수의 전산업 대비 구성비율 순위, 입지상계수 순위를 평균한 산업구조지수 도출

-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의 순위를 평균하여 종합지수 도출
- 각 산업의 종합지수 순위를 전략산업 선정의 기본 우선순위로 부여한 후 입지상계수와 영향력계수 모두 '1' 이상인 산업을 최종 전략산업으로 선정

## IV. 연구 결과

### 1. 관광산업 승수효과 분석

#### 가. 강원도 관광산업 승수효과

- 강원도 28개 산업의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를 분석한 결과 관광산업의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유발승수는 강원도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음
- 지역의 누출효과를 의미하는 수입유발승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낮아 강원도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의존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강원도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는 모두 '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전국단위 관광산업의 유발승수와 비교해 보면 소득·고용·부가가치유발승수 부문은 강원도가 높은 반면 생산·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부문은 전국단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나. 제주도 관광산업 승수효과

- 제주도 28개 산업의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를 분석한 결과 관광산업의 생산·소득·부가가치·순간접세유발승수는 제주도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수입유발승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도 모두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전국단위 관광산업의 유발승수와 비교해 보면 소득·부가가치유발승수 부문은 제주도가 높은 반면 생산·고용·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부문은 전국단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산업의 유발승수**

구분	강원도 유발승수		제주도 유발승수	
	관광산업	전산업평균	관광산업	전산업평균
1. 생산유발승수	1.441622	1.380249	1.406391	1.321955
2. 소득유발승수	0.358878	0.356696	0.361473	0.359745
3. 고용유발승수	0.045711	0.025562	0.034277	0.039565
4. 부가가치유발승수	0.816288	0.779235	0.818518	0.782070
5. 순간접세유발승수	0.073656	0.055248	0.073496	0.055318
6. 수입(import)유발승수	0.183712	0.220765	0.181482	0.217930
7. 영향력계수	1.044466	-	1.063872	-
8. 감응도계수	2.112656	-	2.175653	-

-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산업 유발승수를 비교해 보면 생산·고용·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부문은 강원도가 높으며, 소득·부가가치유발승수 부문은 제주도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는 강원도와 제주도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나 관광산업의 지역차원에서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 2.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본 연구의 시간적 기준인 2000년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각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 2000년 강원도의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총생산유발효과는 2,581,513백만원임.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교지표가 될 수 있는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강원도 지역경제 기여도는 약 11.3%이며 총고용유발효과는 81,855명으로 강원도 전체 취업자

의 20.1% 수준으로 분석됨

- 같은 기간 제주도의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총생산유발효과는 2,106,122백만원으로 추정됨.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는 25.5% 수준이고, 총고용유발효과는 51,331명으로 제주도 전체 취업자의 33.2% 수준임
- 분석결과 총량측면에서는 강원도의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창출 기여율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관광객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강원도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1,790,710	1,497,537
생산유발효과		2,581,513	2,106,122
부가가치유발효과	총효과(a)	1,461,728	1,225,761
	GRDP(b)	12,883,500	4,809,500
	GRDP 기여도(a/b)	11.3	25.5
고용유발효과	총효과(c)	81,855	51,331
	전산업 취업자수(d)	407,515	154,391
	고용창출 기여도(c/d)	20.1	33.2
소득유발효과		642,642	541,319
순간접세유발효과		131,896	110,063
수입(import)유발효과		328,972	271,776

주: GRDP는 통계청(2002a)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취업자수는 통계청(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기준임

### 3. 지역 전략산업 선정

- 전략산업 분석 결과 강원도 제1의 전략산업은 관광산업이며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기타부문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됨
- 제주도 제1의 전략산업은 관광산업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이며, 건설, 금융 및 보험,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기타부문도 전략산업으로 선정됨

&lt;표 4&gt; 강원도와 제주도 전략산업

강원도		제주도	
순위	전략산업	순위	전략산업
1	28. 관광산업	1	28. 관광산업
2	18. 건설	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	18. 건설
4	3. 음식료품	4	22. 금융 및 보험
5	21. 통신 및 방송	5	1. 농림수산물
6	1. 농림수산물	6	9. 비금속광물제품
7	9. 비금속광물제품	7	27. 기타
8	14. 정밀기기	-	-
9	27. 기타	-	-

주: 각 산업의 분류번호는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과정에서 편의상 분류된 번호임

## V.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1. 정책제언

#### 가. 강원도 정책제언

- 입지상계수, 지역산업연관분석의 각종 유발승수, 전략산업 선정에 위한 각종 지수 분석 결과 관광산업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됨
- 강원도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관광객의 계절별·지역별 집중현상 해소,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 유도, 지역주민의 이익과 직접 연계되는 관광산업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 관광산업과 지역의 타 산업(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을 연계한 정책수립,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나. 제주도 정책제언

-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관광산업도 입지상계수, 지역산업연관분석의 각종 유발승수, 전략산업 선정에 위한 각종 지표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은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됨
- 관광산업을 제주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 정체현상, 관광상품 경쟁력 저하,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부진 및 사업추진 지연, 노동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고소득층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컨벤션 산업 등) 적극 유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 실효성 제고, 지역의 타 산업(농림수산물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전략 수립, 업무 전문화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노동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됨

## 2. 향후 연구과제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광산업 분류
  - 관광산업의 범위 명확화
  -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을 고려한 관광산업 분류
-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
  - 명확한 관광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체계적인 통계조사방안 연구
  - 행정구역 단위의 관광객 수 및 관광지출액 관련 자료 생산방안 연구
- 객관적인 평가지표 설정
  - 지역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수립
-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개발
  -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내에서 관광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관광위성계정 개발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	2
1. 연구 범위 .....	2
2. 연구 수행방법 .....	2
제3절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 .....	3
1. 연구 구성 .....	3
2. 연구 수행체계 .....	4
<b>제2장 문헌 및 연구방법 검토</b> .....	<b>5</b>
제1절 관광산업 분류 사례 .....	5
1. 관광산업의 개념 .....	5
2. 관광산업 분류 사례 .....	6
3. 연구문헌의 분류 사례 .....	8
제2절 지역산업연관분석 문헌 검토 .....	9
1. 국내 연구사례 .....	9
2. 국외 연구사례 .....	13
3. 시사점 .....	15
제3절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방법 .....	15
1. 입지상계수법 .....	16
2. 공급수요균형법 .....	17
3. 양비례조정법 .....	18
4. 가중치접근법 .....	19

<b>제3장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b> .....	20
제1절 연구방법 및 주요 지표 설정 .....	20
1. 연구방법 설정 .....	20
2. 주요 측정지표 .....	21
3.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체계 .....	23
4. 지역 전략산업 선정 지수 .....	24
제2절 산업 분류 .....	27
1. 관광산업 분류 .....	27
2. 관광산업 이외 산업 분류 .....	31
제3절 자료 수집 및 처리 .....	31
1. 지역 산업별 생산액 .....	31
2. 부가가치부문 .....	33
3. 고용부문 .....	34
<b>제4장 연구대상지역 선정 및 관광현황 분석</b> .....	35
제1절 연구대상지역 선정 .....	35
제2절 강원도 관광현황 분석 .....	35
1. 관광객 추이 .....	35
2.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	37
3. 관광산업 규모 .....	39
제3절 제주도 관광현황 분석 .....	41
1. 관광객 추이 .....	41
2.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	42
3. 관광산업 규모 .....	43
제4절 강원도와 제주도 비교·분석 .....	47
1. 관광객 증가율 .....	47
2.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	48
3. 관광산업 규모 .....	49

<b>제5장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b> .....	<b>51</b>
제1절 입지상계수 분석 .....	51
1. 강원도 입지상계수 .....	51
2. 제주도 입지상계수 .....	51
제2절 전국 산업별 승수효과 .....	53
1.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53
2.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	55
3. 산업부문간 연관효과 분석 .....	57
제3절 강원도 및 제주도 산업별 승수효과 .....	59
1. 강원도 산업별 승수효과 .....	59
2. 제주도 산업별 승수효과 .....	65
3. 강원도와 제주도 승수효과 비교 분석 .....	71
제4절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75
1. 연구대상지역 관광객 지출액 추정 .....	75
2.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75
3.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79
제5절 시사점 .....	82
<b>제6장 지역 전략산업 종합분석</b> .....	<b>84</b>
제1절 강원도 전략산업 분석 .....	84
1. 종합지수에 의한 전략산업 선정 .....	84
2. 최종 전략산업 선정 .....	86
제2절 제주도 전략산업 분석 .....	87
1. 종합지수에 의한 전략산업 선정 .....	87
2. 최종 전략산업 선정 .....	88
제3절 종합 평가 .....	89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91
제1절 정책제언 .....	91
1. 강원도 관광정책 제언 .....	91
2. 제주도 관광정책 제언 .....	92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94
참고문헌 .....	97
Abstract .....	101
부록 .....	102



## 표 차례

<표 2-1> 국제기구 관광산업 및 상품 분류 기준 .....	7
<표 2-2> 국제기구 관광산업 분류 비교 .....	8
<표 2-3> 선행연구의 관광산업 분류 .....	9
<표 2-4> 지역산업연관분석 관련 선행연구 .....	11
<표 3-1> 관광산업 분류 .....	27
<표 3-2> 관광산업 이외 산업 분류 .....	31
<표 3-3> 관광산업 생산액 자료 .....	32
<표 3-4> 관광산업 이외 산업 생산액 자료 .....	33
<표 4-1> 강원도 관광객 현황 .....	36
<표 4-2> 강원도 관광사업체 현황 .....	38
<표 4-3> 강원도 산업별 종사자수 .....	39
<표 4-4>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율 .....	40
<표 4-5> 강원도 관광관련산업 지역내총생산 비중 .....	41
<표 4-6> 제주도 관광객 현황 .....	41
<표 4-7> 제주도 관광사업체 현황 .....	42
<표 4-8> 제주도 산업별 종사자수 .....	43
<표 4-9>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현황 .....	44
<표 4-10> 제주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	45
<표 4-11> 제주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율 .....	46
<표 4-12> 제주도 관광관련산업 지역내총생산 비중 .....	46
<표 4-13> 관광객 증가율 비교 .....	47
<표 4-14> 관광사업체 현황 .....	48
<표 4-15> 산업별 종사자수 구성비율 .....	49
<표 4-16> 관광관련산업 지역내총생산 비중 .....	50
<표 5-1> 강원도 및 제주도 입지상계수 .....	52
<표 5-2> 전국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54

<표 5-3> 전국 산업별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	56
<표 5-4> 전국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58
<표 5-5> 강원도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60
<표 5-6>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61
<표 5-7> 강원도 산업별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	62
<표 5-8>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	63
<표 5-9> 강원도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64
<표 5-10>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65
<표 5-11> 제주도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66
<표 5-12>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67
<표 5-13> 제주도 산업별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	68
<표 5-14>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	69
<표 5-15> 제주도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70
<표 5-16>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71
<표 5-17> 강원도와 제주도 생산·소득유발승수 비교 .....	72
<표 5-18> 강원도와 제주도 고용·부가가치유발승수 비교 .....	73
<표 5-19> 강원도와 제주도 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비교 .....	73
<표 5-20> 강원도와 제주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비교 .....	74
<표 5-21>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추정 .....	75
<표 5-22>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의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	76
<표 5-23>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의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효과 .....	78
<표 5-24>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	79
<표 5-25>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효과 .....	81
<표 6-1> 강원도 종합지수 .....	85
<표 6-2> 강원도 전략산업 선정 .....	86
<표 6-3> 제주도 종합지수 .....	88
<표 6-4> 제주도 전략산업 선정 .....	89
<표 6-5> 강원도 및 제주도 전략산업 비교 .....	90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	4
[그림 3-1]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도 .....	21
[그림 4-1] 강원도 관광객 계절별 구성비율 .....	36
[그림 4-2] 강원도 관광객 지역별 구성비율 .....	37
[그림 4-3]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추이 .....	44
[그림 4-4] 제주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추이 .....	45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재정경제부가 2003년 추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접수 결과 전국 1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총 448건의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광부문 신청사업은 전체 신청사업의 29.7%인 133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관광관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관광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 및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고용·소득·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높게 나타나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계량적인 방법 중 산업연관분석은 관광산업이 국가 또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구조 분석,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측정과 더불어 경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최근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관광산업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선도산업으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가단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간 비교·평가, 국내외 관광객 지출액의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지역간 비교분석을 위한 모델과 파급효과 측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 지역 경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 타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평가와 관광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둘째, 지역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셋째,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넷째, 지역산업연관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각종 승수효과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전략산업을 평가하는데 있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전국, 강원도, 제주도로 구분된다. 즉 전국산업연관표, 강원도 지역산업연관표, 제주도 지역산업연관표를 각각 작성한 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간·산업간 비교·분석하게 된다. 연구의 시간적 기준은 200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의 최근 작성기준연도가 2000년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부 부문은 활용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01년 기준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적 범위는 관광산업 분류 및 지역 산업연관모형 구축,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지역 전략산업 선정 등을 포함한다.

### 2.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관광산업 분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를 설정하였다.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처리는 통계청 통계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2차 자료를 통합·재조정하여 연구대상지역에 적용하기로 한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후 각 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지역 전략산업 선정 등을 실시한다. 이상의 관광산업 분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지역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지역의 산업별 생산액을 활용한 입지상계수를 도출한 후 전국산업연관표(2000년 기준)에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역 산업연관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승수와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전략산업을 도출한다.

## 제3절 연구 구성 및 수행체계

### 1. 연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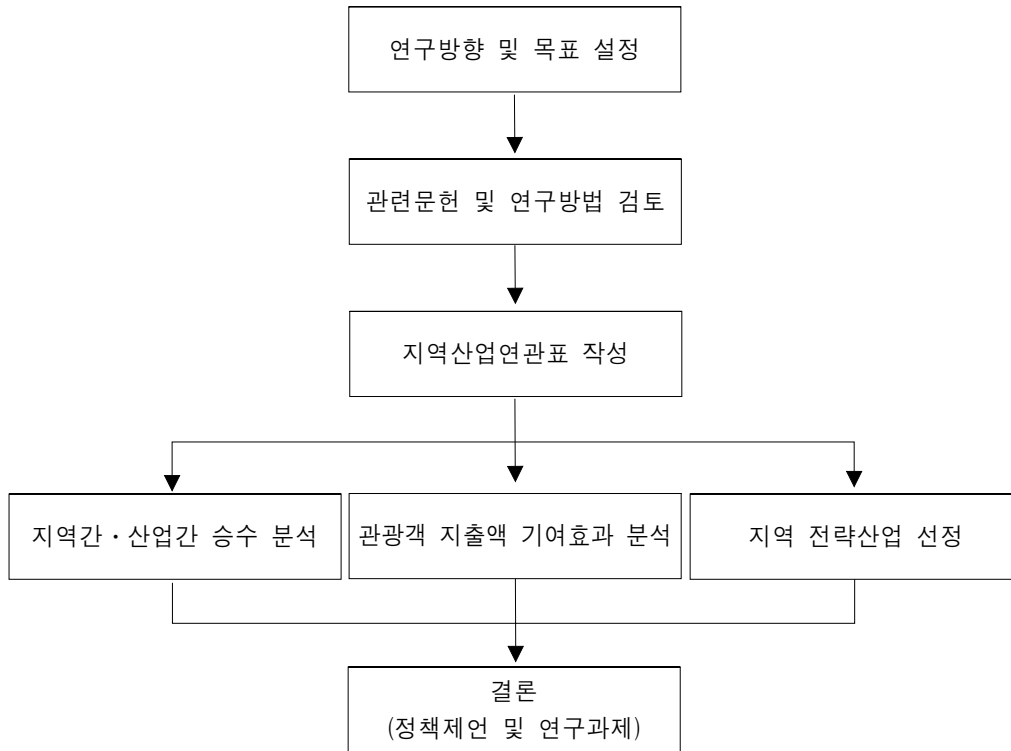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관련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의 분류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식과 국제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식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설정한다.

제3장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관광산업 분류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정리한다. 또한 연구대상지역의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모형과 지역 전략산업 선정지수를 설정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현황을 분석하고 두 지역의 특성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기초하여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관광객 지출액이 연구대상지역에 발생시키는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측정하기로 한다. 제6장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산업 유발승수 및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자 한다. 아울러 강원도와 제주도의 향후 관광산업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인 제7장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언과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수행체계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 제2장 문헌 및 연구방법 검토

### 제1절 관광산업 분류 사례

#### 1. 관광산업의 개념

현재 관광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관광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는 관광과 관련이 높은 산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은 동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의선(1995)은 관광산업을 국민경제를 구성하면서 관광과 관련된 동종·유사상품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 기업집단이며, 집단이 다시 어떤 유형화한 기준에 따라 동종유사 산업별로 군집한 부문단위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는 영리적인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관광부문의 공공행정 및 비영리적 단체의 활동도 포함된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관광산업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외래 방문객 및 국내여행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 및 상업적인 활동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는 관광산업을 “관광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며 호텔 및 숙박(hotels and supplementary accommodations), 음식점(restaurants), 유흥시설(entertainment and attractions), 쇼핑(shopping), 국내교통(domestic transport service), 국제교통(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을 관광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적인 정의를 보면 캐나다의 NTFTD(National Task Force on Tourism Data)는 관광산업을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사업, 휴식, 여가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산업의 총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2. 관광산업 분류 사례

### 가. 우리나라의 분류 사례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이의 분류체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여 왔다. 이러한 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관광관련산업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분류 권고안을 참고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체계 내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특수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특수분류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는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특수목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산업분류를 재구성한 “관광관련 산업분류표”와 “에너지관련 산업분류표” 등의 특수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관광관련 산업분류표”에서 분류된 산업은 비록 관광산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관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들로서 이들 산업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산업항목을 취사·선택하여 관광산업을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각 산업이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정의하는 관광활동의 특성과 일치하는 경우 산출부문에 ‘특성’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의 산업매출액 중 관광객 지출로 올리는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매출부문에 ‘상’, 20~60%인 경우 ‘중’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수분류에 의한 관광산업에는 건설업, 자동차 판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세부산업들이 포함된다.

## 2)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이라 하여 7개의 업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법 제2조 1항에서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는 여행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있다.

### 나. 국제기구 분류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작성을 위하여 관광산업 분류기준인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관광상품 분류를 위한 기준인 상품·서비스 분류(CPC: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관광산업 분류를 위한 표준산업분류(SICT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와 관광상품 분류를 위한 관광상품코드(TCP: Tourism Product Code)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 국제기구 관광산업 및 상품 분류 기준

구분	OECD	WTO
관광산업 분류기준	ISIC	SICTA
관광상품 분류기준	CPC	TPC

자료: 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이러한 국제기구의 관광산업 및 상품 분류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세계관광기구(WTO)의 분류기준인 SICTA 및 TP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

류기준인 ISIC와 CPC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광산업을 관광핵심산업(characteristic industries), 단일용도내구재(single purpose durables), 기타 관광산업(all other industries), 기타(other industries)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일용도내구재는 관광핵심산업과 기타 관광산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세계관광기구(WTO)는 관광산업을 관광산업(tourism industries), 관광관련산업(connected activities), 관광주변산업(non specific activit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2> 국제기구 관광산업 분류 비교

OECD	WTO
1. 관광핵심산업 • 숙박업                      • 식·음료 서비스업 • 여객운송서비스업        • 렌터카서비스업 • 스키장업                    • 휴양은천업 • 크루즈업                    • 단일용도내구재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오락,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업	1. 관광산업 • 숙박업                      • 식·음료 서비스업 • 여객운송서비스업        • 운수장비대여업 • 문화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레크레이션 및 오락 서비스업
2. 기타 관광산업 • 유통마진                    • 재화 • 서비스                      • 단일용도내구재	2. 관광관련산업
3. 기타	3. 관광주변산업

주: WTO의 '2. 관광관련산업'은 국가별로 세분화 가능

자료: 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에 의거 재정리

### 3. 연구문헌의 분류 사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는 가능하나 통계청,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기관에서는 관광산업을 단일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2-3>).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산업연관분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관광의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요소인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 등의 업종을 포함하여 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lt;표 2-3&gt; 선행연구의 관광산업 분류

연구자	관광산업 분류
Ruiz(1985)	숙박업, 교통업, 무역·통상, 유희·레크레이션
Smith(1988)	숙박업, 교통업, 여행서비스업, 음식점업, 레크레이션·오락, 소매점
Heng&Low(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희·레크레이션, 도소매, 교통통신, 기타 서비스
UN(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희업, 쇼핑업, 국내교통업, 국제교통업
Lee(1992)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도로교통, 기타 서비스
교통개발연구원(1992)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한국관광공사(1993)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오락문화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권경상(1994)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소매업)
Hurley <i>et al</i> (1994)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통업, 기타서비스업
Lee&Kwon(1995)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 쇼핑, 유희(문화오락서비스)
이충기·박창규(1996)	호텔, 음식점, 교통통신,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 카지노
Lee&Kwon(1997)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업, 쇼핑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카지노업
한국관광연구원(1997)	숙박·음식점업, 교통업, 기타운수관련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
한국개발연구원(1998)	도소매, 음식, 숙박
김규호·김사현(1998)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소매업(쇼핑업)

자료 : 이충기(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 제2절 지역산업연관분석 문헌 검토

### 1. 국내 연구사례

#### 가. 지역산업연관분석 연구 사례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제구조 분석, 생산활동의 각종 파급효과 분석,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등에 있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즉, 산업연관분석은 일국의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접근방법으로서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정부조세수입, 수입(import)에 대한 직·간접 유발효과를 측정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정시점에서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sup>.

산업연관분석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어느 한 산업부문의 생산기술구조를 단일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 산업부문에 대한 여러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평균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산업부문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기술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나 교역상태를 반영하여 지역간 및 산업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지역산업연관분석이다(한국은행, 1987).

지역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지역 내의 경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지역산업연관모형(single-region input-output model)과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many-region input-output model)으로 구분된다. 단일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모형으로써 전국산업연관모형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의 상품을 타 지역으로 판매하는 이출과 타 지역으로부터 구입하는 이입을 수출입의 취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생산활동에 대한 지역간의 상호의존 관계까지도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경제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및 산업간의 거래관계를 함께 기록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게 된다.

지역산업연관분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특정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의 선도산업 발굴 및 육성, 지역 경제정책 수립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원개발연구원(1999)과 제주발전연구원(1999)은 각 지역의 산업 및 경제구조 분석과 지역정책 및 전략산업 도출을 위해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북개발연구원(2000)도 지역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전광역시(2001) 역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시도하였다. 한편 지역산업연관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투입계수 추정 방법으로는 가중치접근법, 입지상계수법, 양비례조정법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표 2-4>).

1) 산업연관분석의 문제점으로는 i) 계수가 불변이고 비례적이라는 가정(Khan *et al.*, 1990), ii) 직접 조사 시 막대한 자료수집 비용 소요 및 수집자료의 산업분류 어려움, iii) 정태분석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자료 조사의 필요성(Fletcher, 1989), iv) 투입계수의 비례적 관계에 대한 가정 등이 있다.

&lt;표 2-4&gt; 지역산업연관분석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분석 내용	지역투입계수 추정 방법
김호연(1986)	대구지역 경제구조와 산업상호간 의존관계 분석	공급수요균형법
국토개발연구원 (1986)	산업기지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입지상계수법, 가중치접근법
하성균·허재완 (1990)	부산지역 주택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입지상계수법
김태보(1990)	제주경제의 성장전략산업 파악과 전략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중치접근법, 공급수요균형법
운영선·안정화 (1993)	수도권과 기타권의 건설투자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산업부분별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분석	입지상계수법
경남개발연구원 (1994)	경남지역의 경제구조와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선정	양비례조정법
고영구(1996)	청주과학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예측	가중치접근법
강원개발연구원 (1999)	강원도 산업 유형 구분, 산업구조 분석,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	입지상계수법, 양비례조정법
제주발전연구원 (1999)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및 제주도 전략산업 도출	가중치접근법, 공급수요균형법
김영표(2000)	경남지역 경제의 특징과 변화방향 분석	양비례조정법
충북개발연구원 (2000)	적정한 산업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도출을 위한 충북지역 산업구조 분석	가중치접근법
대전광역시(2001)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분석모형 개발	가중치접근법

#### 나. 관광부문 산업연관분석 사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sup>2)</sup>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관광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범주화하고 타 산업들과 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 부가가치승수, 수입승수, 순간접세승수, 외화가득율, 감응도계수,

2) 관광산업과 관련한 경제효과 분석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i)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ii)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iii)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Keynesian income-expenditure model) 등으로 이들 분석방법의 공통점은 승수효과 분석을 통하여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차이점은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의 경제효과분석에 초점을 둔 반면에 경제기반모형 및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은 거시계량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향력계수 등을 상호 비교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연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증수, 고용증수, 부가가치증수, 순간접세증수, 외화가득율, 감응도계수 등은 전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증수, 영향력계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증수와 부가가치증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관광산업의 세부산업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업, 컨벤션산업 등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국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관광산업과 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교통개발연구원(1992), 한국관광공사(1993), 한국관광연구원(199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관광관련 국제기구(UN ESCAP, OECD 등)가 제시한 관광산업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관광산업의 증수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단일지역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제주도를 연구대상지역으로 분석한 김태보(1990)·정준무(1994)의 연구와 이강욱(1997)이 경주지역과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등이 있다. 김태보(1990)는 음식·숙박업, 여행알선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교통업, 과일재배, 양봉, 목각·석제품 제조 등을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요공급혼합법을 적용하여 제주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반면 정준무(1994)는 도소매, 음식점, 숙박, 운수·보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을 관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입지상계수법과 수요공급혼합법에 지역가중치를 적용하여 제주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이강욱(1997)은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에서 입지상계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지역을 관광개발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제주 중문관광단지로 설정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의 한 유형인 다지역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0)은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15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였다. 조광익·임재영(2001)은 우리나라를 두 지역(강원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와 증수 등을 지역간 비교하여 지역 내 관광산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승묵·김남조



(2002)는 우리나라를 9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간·산업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관광산업 분류에 있어서 관광목적의 소비지출이 국민경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관광비(tourism ratio)를 적용하여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관광산업의 분류가 개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 전국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입지상계수법, 수요공급혼합법, 양비례조정법 등의 기법을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및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의 방법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한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외 연구사례

관광분야에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초기의 연구는 미국의 함스톤(Harmston)이 1960년 발표한 논문 『서부지역에 있어서 여행자 지출의 간접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뒤 아처(Archer), 스트랭(Strang) 등에 의해 확산되었다. 국외의 연구는 관광과 관련이 있는 호텔, 레스토랑, 교통업 등을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Johnson & Moore(1993)는 미국 오레곤주의 한 수변지역 관광객에 대한 지출조사를 기존에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지방정부가 기존에 작성한 IMPLAN<sup>3)</sup>에 관광객 지출조사의 결과를 적용하였는데, 조사지역 방문의 강도에 따라서 3가지 영향을 측정된 결과 다른 대안적인 관광계획을 가진 경우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rcher(1995)는 영국 버뮤다섬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와 공항출국시 관광객 지출조사를 병행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버뮤다 경제에 대한 관광산업의 기여효과는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IMPLAN(IMPact analysis for PLANning)은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미국에서 USDA 산림청(USDA Forest Service)을 위해서 개발하였다. IMPLAN은 천연자원의 대체적인 이용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및 공병대(Army Corps of Engineers) 등 정부기관에 의해서 이용되어왔다[자세한 내용은 Johnson & Moore(1993) 참조].

Deepak *et al.*(2003)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역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 규모를 IMPLAN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축제의 농촌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종 유발승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개최되는 축제는 숙박 부문 지출액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당일 축제는 식음료 부문 지출액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도 관광객이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비교·분석, 관광객의 출신국·관광목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도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산업의 직·간접 유발효과 분석, 관광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Andrew(1997)는 Cornwall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전략은 아니며, 관광산업은 지역 내부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관광개발이 항상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였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연구방법 또는 CGE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Vaughan *et al.*(2000)은 관광객의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제공하는 편익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자료의 수집, 모형 분석, 결과 도출 및 해석의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산업연관분석과 케인즈 승수분석을 결합한 PMA(Proportional Multiplier Analysis) 모형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지출액 및 이로 인한 직접·간접·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Jie(2002)는 덴마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Danish LINE Model(Danish inter-regional macroeconomic model)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CGE 모형과 동일한 구조이며 SAM(Social Account Matrix) 모형의 자료구축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간적 범위의 설정, 행렬(matrix)의 구축 및 활용 등에 있어 기존 모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Larry *et al.*(2003)은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지역 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산업연관분석에서 불가능했던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ve effects)'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 내·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지출액 모두 New South

Wales주의 소득과 고용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시사점

국내외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 분석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분류가 필수적이거나 이를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이 공급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음식점, 숙박, 여행알선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수요측면에서 볼 때 음식점, 숙박업이 모두 '관광'이라는 매개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광역단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에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연관분석은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외국의 경우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표가 미리 작성되어 있거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가능케 하는 사업체 조사 자료가 준비됨으로써 일정수준 정확성을 확보한 소규모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표 작성이 가능하였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직접조사 자료수집 방법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등 분석지표의 유용성을 인정할 때 효과분석의 절대계수만 제공할 뿐 영향요인의 분석과 같은 인과분석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산업간의 경제파급효과 비교·분석에 있어 유용한 분석수단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의 승수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 제3절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방법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조사방법과 간접조사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간접조사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입지상계수법, 공급수요균형법, 양비례조정법, 가중치접근법 등이 있다.

## 1. 입지상계수법

입지상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은 국가경제에 대한 그 지역경제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전국 산업에 대한 지역산업의 상대적 중요도와 전국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L$ 지역  $i$ 산업의 입지상계수( $LQ_i^L$ )는  $i$ 산업이  $L$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그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하는 계수로 식(2·1)과 같이 구해진다.

$$LQ_i^L = \frac{\frac{X_i^L}{X^L}}{\frac{X_i^N}{X^N}} \quad (2 \cdot 1)$$

단,  $LQ_i^L$  :  $L$ 지역  $i$ 산업의 입지상계수

$X_i^L$  :  $L$ 지역  $i$ 산업의 생산액(또는 고용자수)

$X^L$  :  $L$ 지역 전 산업 생산액(또는 고용자수)

$X_i^N$  :  $i$ 산업의 전국 생산액(또는 고용자수)

$X^N$  : 전 산업의 전국 생산액(또는 고용자수)

입지상계수는 생산능력 측면에서 지역경제 개별산업들의 자급자족도를 나타낸다. 즉, 위의 식에서  $LQ_i^L > 1$ 이면  $L$ 지역  $i$ 산업은 이출하는 산업이 되고  $LQ_i^L = 1$ 이면 자급자족하는 상황이며,  $LQ_i^L < 1$ 이면  $L$ 지역  $i$ 산업은 지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지역  $i$ 산업의 생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지상계수를 이용하여 지역투입계수( $A^L$ )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국투입계수( $A^N$ )를 식(2·2)와 같이 조정하면 된다.

$$A^L = LQ \cdot A^N \quad (2 \cdot 2)$$

단,  $A^L$  : 지역투입계수행렬( $k \times k$ )

$LQ$  :  $LQ_i^L$ 을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 $k \times k$ )

$A^N$  : 전국투입계수행렬( $k \times k$ )

위의 식에서 대각행렬  $LQ$ 의 원소는  $LQ_i^L \geq 1$ 일 경우에는 1이 되고,  $LQ_i^L < 1$ 일 경우에는  $LQ_i^L$ 이 된다.

입지상계수법의 종류에는 단순입지상계수법(simple LQ), 구매자 입지상계수법(purchases only LQ), 교차산업 입지상계수법(cross-industry LQ), 대수교차산업 입지상계수법(logarithmic cross-industry LQ) 등이 있는데 이중 단순입지상계수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공급수요균형법

공급수요균형법(Supply-Demand Pool Method)은 한 산업의 지역총생산액에서 그 산업제품에 대한 지역 총수요소요액(total demand requirements)을 차감하여 지역상품의 과잉 또는 과소분을 추정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전국투입계수로부터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공급수요균형법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2·3)과 같이 전국투입계수와 지역 산업별 생산액을 기초로 지역의 산업별 중간수요소요액을 도출해야 한다.

$$\widehat{X}_{ij}^L = a_{ij}^N \cdot X_j^L \quad (2 \cdot 3)$$

단,  $\widehat{X}_{ij}^L$  : L지역 i산업에 대한 j산업의 중간수요소요액

$a_{ij}^N$  : 전국투입계수

$X_j^L$  : L지역 j산업의 생산액

다음으로 최종수요를 구성하는 항목별 수요소요액을 추정하고 이를 합계하면 지역의 산업부문별 최종수요소요액을 식(2·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widehat{F}_i^L = C_i^L + G_i^L + K_i^L + S_i^L \quad (2 \cdot 4)$$

단,  $\widehat{F}_i^L$  : L지역 i산업의 최종수요소요액

$C_i^L$  : L지역 i산업의 민간소비소요액

$G_i^L$  : L지역 i산업의 고정자본형성소요액

$S_i^L$  : L지역 i산업의 재고증가소요액

다음으로 한 산업에 대한 지역의 산업별 중간수요소요액을 합계하고 이것에 지역 최종수요소요액을 더하여 지역의 산업별 총수요소요액을 추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2·5)와 같다.

$$\widehat{X}_i^L = \sum_{j=1}^k \widehat{X}_{ij}^L + \widehat{F}_i^L \quad (2 \cdot 5)$$

단,  $\widehat{X}_i^L$  : L지역 i산업에 대한 총수요소요액

$\sum_{j=1}^k \widehat{X}_{ij}^L$  : L지역 i산업에 대한 중간수요소요액의 합

마지막으로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에서 해당산업에 대한 지역의 총수요소요액을 차감하여 지역의 산업별 상품수지계수( $e_i^L$ )를 식(2·6)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_i^L = X_i^L - \widehat{X}_i^L \quad (2 \cdot 6)$$

단,  $X_i^L$  : L지역 i산업의 생산액

식(2·6)에서  $e_i^L \geq 1$ 인 경우는 L지역의 i산업이 지역 총수요소요액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하여 잉여분을 타 지역으로 수출한다고 할 수 있으며,  $e_i^L < 1$ 인 경우에는 i산업이 L지역 총수요소요액에 못 미치는 생산을 하여 부족분을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한다고 할 수 있다.

### 3. 양비례조정법

양비례조정법(RAS Method)은 반복균형접근법의 하나로 전국투입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반복 수정하는 방법으로 원래 시계열적으로 장래의 투입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이 기법을 이용하여 전국투입계수를 지역투입계수로 변환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양비례조정법에 의한 지역투입계수 추정방법은 먼저 지역의 산업별 중간수요 및 중간투입과 총생산액을 추정하고 둘째, 추정된 지역 산업 부문별 총생산액과 전국투입계수와 곱하여 가상적 지역거래표를 작성하며 셋째, 대체변화계수와 가공도변화계수를 측정하여 추정된 지역의 중간수요액과 중간투입액의 비중이 같아질 때까지 반복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식(2·7)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L = r_i \cdot A^N \cdot s_i \quad (2 \cdot 7)$$

단,  $A^L$  : 지역투입계수행렬

$r_i$  : 대체변화효과에 의한 수정요인

$s_i$  : 가공도변화효과에 의한 수정요인

전국투입계수행렬에서 지역투입계수행렬로 변하게 되는 요인은 대체변화효과(effect of substitution change)와 가공도변화효과(effect of fabric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변화란 산업생산에 있어서 상품  $i$ 와 다른 상품과의 대체사용 정도를 말하며 행을 변화시키는 기술요인이고, 가공도변화란  $i$ 부문 산업생산에 있어서 자본 집적도와 부가가치율의 변화를 의미하며 열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대체변화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상대적인 상호부문간 관계에서 야기되는 변화를 의미하며, 가공도변화는 중간투입과 기초투입의 상대적 상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양비례조정법은 전국투입계수, 지역의 산업부문별 총산출액, 중간수요액, 중간투입액 등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각 행과 열을 일률적인 비율로 수정하므로 지역 산업의 구조가 전국에 대하여 비례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부문에 있어서는 수정의 결과가 오히려 지역 산업의 생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4. 가중치접근법

가중치접근법은 매우 세분된 산업부문의 투입구조는 지역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세분된 산업부문의 전국투입계수에 지역생산액 또는 고용자수 등 지역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세분된 산업부문별 전국투입계수에 지역생산액을 곱하여 세분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한 후 구하고자 하는 통합부문별로 합산하여 지역거래표를 구한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지역거래액을 통합부문별 지역생산액으로 나누어 통합된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생산물 혼합의 지역간 격차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접근법과 혼합되어 사용할 수 있으나 매우 세분된 전국투입계수와 지역생산액 자료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 제3장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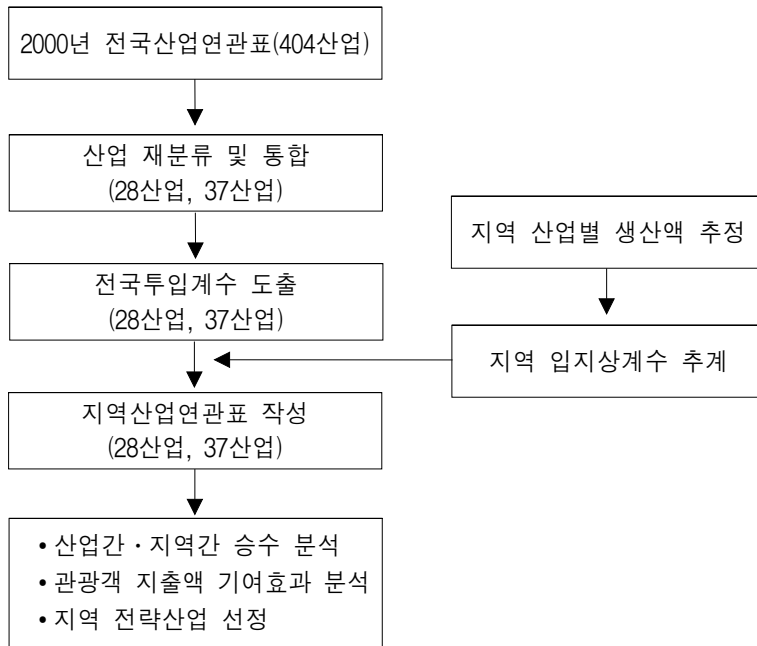
### 제1절 연구방법 및 주요 지표 설정

#### 1. 연구방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방형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한 단일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이는 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가 개방모형이며,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지역산업연관표가 아닌 단일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단일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의 핵심이 되는 지역투입계수 추정은 선행연구에서 상대적 우수성이 입증된 입지상계수법을 활용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 산업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입지상계수를 도출한 후 전국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게 된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목적에 적합한 산업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를 관광산업 포함 28개 산업으로 재분류·통합한다. 또한 관광산업을 10개의 세부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여 총 37개 산업으로 구성된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연구대상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을 추정하여 각 지역의 입지상계수를 도출하고 입지상계수와 전국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부문을 조정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등을 도출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간·지역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 지출액이 연구대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효과를 분석하고 각종 유발승수와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림 3-1]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도

## 2. 주요 측정지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면 산업 제품에 대한 1단위 외부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소득, 고용 등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한국은행, 1987). 즉 최종수요의 변화가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등의 추계도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구조 분석에 유용하다<sup>4)</sup>.

### 가. 생산유발승수

생산유발승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적인 방법인 역행렬을 이용해 구한다 하여 역행렬계수라 하기도 한다.

4) 산업연관표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각종 유발승수의 계산식은 한국은행(1987)의 '산업연관분석 해설'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나. 소득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직·간접 소득유발효과를 의미한다. 소득유발승수는 소득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 다. 고용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나타낸다. 고용유발승수는 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 고용계수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한다.

## 라. 부가가치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효과를 의미한다.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계산하려면 부가가치계수 합계의 대각행렬에 생산유발액을 곱하면 된다.

## 마. 간접세유발승수

간접세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간접세 효과를 의미한다. 간접세유발승수는 간접세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 바. 수입(import)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효과를 의미한다. 수입유발승수는 수입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 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 1) 영향력계수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계수로 산업의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영향력계수는 승수행렬에서 해당 산업의 열의 합을 전 산업의 평균 열의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반대로 영향력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한다.

### 2) 감응도계수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변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을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계수로 산업의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감응도계수는 승수행렬에서 해당 산업의 행의 합을 전 산업 행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다른 산업 제품들의 최종 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산업이며, 감응도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생산이 1단위보다 작게 증가하는 산업이다.

## 3.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체계

연구대상지역 관광객의 지출액을 관광부문의 최종수요에 대입하고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생산유발승수행렬에 적용하면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

석할 수 있다. 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방문 관광객의 지출액을 관광산업 최종수요에 대입하고 타 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한 후 생산유발승수행렬에 최종수요의 열행렬을 곱하면 된다(이강욱, 1997).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3·1)과 같다.

$$O = (I - A)^{-1} \times C \quad (3 \cdot 1)$$

단,  $O$  : 생산유발효과 열행렬

$(I - A)^{-1}$  : 생산유발승수행렬

$C$  : 관광객 지출액을 관광산업에 대입한 최종수요 열행렬

식(3·1)의 생산유발승수행렬에 고용·소득·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행렬 등을 적용하면 강원도 및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고용·소득·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4. 지역 전략산업 선정 지수

산업연관분석에서 핵심산업 혹은 전략산업의 기준은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나 원재료를 많은 부문 구입하는 동시에 자기제품을 타 산업의 원료로 많이 판매하는 등 타 산업들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도출되는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가 전략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의 결과 도출된 각종 유발승수 및 영향력계수, 지역 입지상계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제주발전연구원(1999)은 지역산업연관분석의 결과 도출된 각종 유발승수들을 활용하여 지역 전략산업 선정 기준으로 효율성지수(I), 효율성지수(II),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I), 종합지수(II)를 도출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지수는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를 활용하여 도출하는데, 효율성지수는 각 산업의 생산·고용·부가가치유발승수 순위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산업구조지수는 산업별 생산액 및 취업자수의 구성비율 순위, 입지상계수의 순위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산업 선정기준을 위한 지수들의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는 것

은 첫째, 종합지수(I)과 종합지수(II)는 산업연관분석 과정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자료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합지수(I)과 종합지수(II)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종합지수(I)과 종합지수(II)는 단일화하여 종합지수로 표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 등의 계산과정에서 각 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하지 않고 단순 평균하였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계산된 평균 점수의 절대적인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순위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여하였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제주발전연구원, 1999).

그러나 여러가지 승수 및 유발효과, 기타 변수의 순위만을 정해 정책 입안자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종합지수가 지니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종합 순위를 정해주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한다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의 계산은 선행연구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에서 핵심산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영향력계수를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효율성지수는 연구대상지역의 지역산업연관분석으로 도출된 생산·소득·고용·순간접세유발승수의 각 산업별 순위를 평균하여 도출하였다.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획득한 산업이 효율성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산업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3·2)와 같다.

$$EI_i^L = \frac{PM_i^L + IM_i^L + EM_i^L + TM_i^L}{4} \quad (3 \cdot 2)$$

단,  $EI_i^L$  : L지역 i산업의 효율성지수

$PM_i^L$  : L지역 i산업의 생산유발승수 순위

$IM_i^L$  : L지역 i산업의 소득유발승수 순위

$EM_i^L$  : L지역 i산업의 고용유발승수 순위

$TM_i^L$  : L지역 i산업의 간접세유발승수 순위

한편 생산액 및 취업자수의 구성비율 순위와 입지상계수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구조지수는 식(3·3)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IS_i^L = \frac{P_i^L + R_i^L + LQ_i^L}{3} \quad (3 \cdot 3)$$

단,  $IS_i^L$  : L지역 i산업의 산업구조지수

$P_i^L$  : L지역 전산업 생산액 중 i산업 생산액의 비중 순위

$R_i^L$  : L지역 전산업 취업자 중 i산업 취업자의 비중 순위

$LQ_i^L$  : L지역 i산업 입지상계수의 순위

이상의 효율성지수( $EI_i^L$ )와 산업구조지수( $IS_i^L$ )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하면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종합지수( $TI_i$ )는 식(3·4)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TI_i^L = \frac{EI_i^R + IS_i^R}{2} \quad (3 \cdot 4)$$

단,  $TI_i^L$  : L지역 i산업의 종합지수

$EI_i^R$  : L지역 i산업의 효율성지수 순위

$IS_i^R$  : L지역 i산업의 산업구조지수 순위

본 연구에서 채택한 종합지수( $TI_i^L$ )가 지역 전략산업 선정의 완벽한 기준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여건과 자연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가 전략산업 선정 기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각종 승수를 활용하여 효율성지수,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 등의 개념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략산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영향력계수 및 각종 유발승수를 종합적으로 종합지수에 반영하여 도출한 자료를 지역의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산업 분류

### 1. 관광산업 분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관광기구(WTO)는 공급측면의 관광활동별 경제분류인 SICTA를 작성하여 관광산업 분류에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SICTA는 전세계 각국의 관광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무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각 지역 연구기관의 관광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SICTA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분류에 적합한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SICTA 항목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 기준 항목과 조정과정을 통하여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항목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항목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항목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에 포함되는 숙박, 식음료, 교통, 차량임대,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희, 소매(쇼핑) 부문을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교통부문은 여객운송, 운수보조, 여행업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관광산업을 10개의 세부산업으로 구성된 단일 산업으로 분류하였다(<표 3-1>).

<표 3-1> 관광산업 분류

관광산업	산업연관표	KSIC	SICTA
숙박	332. 숙박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191.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Hotels and Motels with Restaurants 5510-2. Hotels and Motels without Restaurants 5510-3. Hostels and Refuges 5510-4. Camping Sites, including Caravan Sites 5510-5. Health-oriented Accommodation 5510-9. Other Provisions of Lodging, N.E.C.

<표계속>

관광산업	산업연관표	KSIC	SICTA
식음료	331. 음식점	55211. 한식점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55215. 기관구내식당 운영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55221. 피자, 햄버거및치킨 전문점 5522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5223. 이동 음식점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231. 일반 유흥 주점업 55232. 무도 유흥 주점업 55233. 간이 주점업 55241. 제과점업 55242. 찻집	5520-1. Bars and Other Drinking Places 5520-2. Full-service Restaurants 5520-3. Fast Food Restaurants and Cafeterias 5520-4. Institutional Food Services, Caters 5520-5. Food Kiosks, Vendors, Refreshment Stands 5520-6. Night Clubs and Dinner Theaters
여객 운송	333. 철도여객 운송	60100. 철도 운송업	6010-1. Interurban Rail PSGR Services 6010-2. Special Rail Tour Services
	335. 도로여객 운송	60220. 시외버스 버스운송업 60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운송업 60231. 택시 운송업 60232. 전세버스 운송업	6021-1. Scheduled Interurban Buses 6021-3. Scheduled Local and Metropolitan Transit Services 6021-4. Specialized Scheduled Vehicles 6022-1. Taxis 6022-2. Chauffeured Vehicles 6022-3. Local Tour Vehicles 6022-4. Charter Buses, Excursions (Same-Day Visits) 6022-5. Man or Animal-drawn Vehicles
	337.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61121. 내항여객 운송업 61201. 내륙수상 여객 운송업	6120-1. Inland Water PSGR Transport W/Accommodation 6120-2. Inland Water Local Tours 6120-3. Inland Water Taxis, Ferries
	338. 외항운송	61111. 외항여객 운송업	6110-1. Cruise Ships
	339. 항공운송	62100. 정기항공 운송업 62200. 부정기항공 운송업	6210-1. Scheduled Air PSGR Transport 6220-1. Non. Scheduled Air PSGR Transport



&lt;표계속&gt;

관광산업	산업연관표	KSIC	SICTA
운수 보조	340. 육상운수 보조서비스	63911.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 63912.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63915. 주차장 운영업	6303-1. Other Supporting Land Transport Activities
	341. 수상운수 보조서비스	63921.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63922. 도선업 63929. 기타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3-2. Other 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342. 항공운수 보조서비스	63931. 공항 운영업 63939. 기타 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6303-3. Other 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차량 임대	36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71110. 승용 자동차 임대업 7112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110-2. Ship Rental W/Crew 622-2. Aircraft Rental Crew 7111-1. Automobile Rental 7111-2. Motorcycle Rental 7111-3. Recreational Vehicle, Camper Caravan Real 7113-1. Renting of Air Transport Equipment for Personal Use 7130-2. Rental of Horses 7130-3. Rental of Bicycles
여행업	345.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63311.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63312. 국내여행사업 63390.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6304-1. Travel Agents 6304-2. Tour Operators, Packagers and Wholesalers 6304-3. Ticket Offices not a Part of Transport Companies 6304-4. Guides
운동 · 경기	392.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88311. 실내경기장 운영업 88312. 실외경기장 운영업 88313. 경마 및 경기장 운영업 88321.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883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241-1. Physical Fitness Facilities 9241-2. Operation of Sporting Facilities 9241-3. Activities Related to Recreational Hunting 9241-4. Other Sporting Activities, N.E.C. 9249-2. Activities Related to Recreational Fishing 9249-5. Operation of Ski Lifts

## &lt;표계속&gt;

관광산업	산업연관표	KSIC	SICTA
문화 공연	388. 문화서비스 (국공립)	87311. 공연시설 운영업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9215. Operation of Ticket Agencies 9231. Library and Archive Activities 9232-1. Museums of All Kinds and Subjects
	389. 문화서비스 (기타)	88221. 박물관 운영업 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 시설 운영업	9232-2.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9233-1.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 9233-2. Nature and Wildlife Preserves 9249-1. Operations of Recreation Parks and Beaches 9249-4. Operation of Recreational Fairs and Shows
	390. 영화		9212. Motion Picture Projection
	391.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87321. 연극단체 87322. 무용 및 음악단체 87329. 기타 공연단체	9214. Dramatic Arts, Music and Other Art Activities 9215. Operation of Ticket Agencies
오락 · 유흥	393. 기타 오락 서비스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88921. 해수욕장 운영업 88929.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 88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9219-1. Amusement Parks 9219-2. O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N.E.C. 9249-3. Gambling and Betting Operations, Casinos
소매	330. 소매	50401. 주유소 운영업 50402. 차량용 가스 충전업 52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66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2-1.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Textiles 5232-2.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Clothing 5232-3.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Footwear and Leather Goods 5232-4.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Luggage 5232-5. Other Retail Sale of Travel Accessories in Specialized Stores 5239. Other Retail Sales in Specialized Stores 5239-3. Retail Sales, Camping and Hiking Equipment 5239-4. Retail Sales, Hunting and Fishing Equipment 5239-5. Photographic Sales and Services 5239-6. Retail Sales, Gift and Souvenir Shops

## 2. 관광산업 이외 산업 분류

관광산업을 제외한 산업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기준 전국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27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3-2> 관광산업 이외 산업 분류**

1. 농림수산물	10. 제1차금속	19. 도소매
2. 광산물	11. 금속제품	20. 운수 및 보관
3. 음식료품	12. 일반기계	21. 통신 및 방송
4. 섬유 및 가죽제품	13. 전기 및 전자기기	22. 금융 및 보험
5. 목재 및 종이제품	14. 정밀기기	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 인쇄, 출판 및 복제	15. 수송장비	24. 공공행정 및 국방
7. 석유 및 석탄제품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25. 교육 및 보건
8. 화학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9. 비금속광물제품	18. 건설	27. 기타

## 제3절 자료 수집 및 처리

### 1. 지역 산업별 생산액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산업별 생산액을 추계하였다. 즉 세부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연관표상의 부문과 통계청 산업분류의 세세부문을 조정한 후 통계자료의 산업 세세분류별 지역생산액을 종합하여 각 산업별 생산액을 추계하였다. 다만 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발표되는 일부 통계자료들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통계원시자료'를 신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 가. 관광산업 생산액

관광산업의 생산액은 세부 관광산업 생산액 추계 후 이를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숙박업과 식음료업은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의 생산액을 이용하였고, 여객운송, 운수보조, 여행업은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의 연간 운수수입을 활용하였다. 차량임

대,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 소매 부문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의 매출액을 활용하였다. 다만 차량임대,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 소매 부문은 산업 세세분류별 매출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준연도가 2001년으로 조정되었다(<표 3-3>).

<표 3-3> 관광산업 생산액 자료

구분	자료명	code	기준연도
숙박업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55191, 55199	2000년
식음료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1, 55222, 55223, 55229, 55231, 55232, 55233, 55241, 55242	2000년
여객운송	운수업 통계조사 보고서	601000, 602201, 602202, 602311, 602312, 602320, 611110, 611210, 612010, 621000, 622000	2000년
운수보조	운수업 통계조사 보고서	639120, 639140, 639220, 639290, 639300	2000년
차량임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71110, 71129	2001년
여행업	운수업 통계조사 보고서	633100	2000년
문화공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87311, 87349, 88221, 88222, 88232, 87321, 87322, 87329	2001년
운동·경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88311, 88312, 88313, 88321, 88329, 88331, 88332	2001년
오락·유흥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88992, 88995, 88921, 88929, 88999	2001년
소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50401, 50402, 52430, 52634, 52641, 52662, 52699	2001년

#### 나. 관광산업 이외 산업 생산액

관광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역시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관광산업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소매,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연도가 2001년도로 조정되었다.

&lt;표 3-4&gt; 관광산업 이외 산업 생산액 자료

산업분류	자료명	code	기준연도
1. 농림수산물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2000년
2. 광산물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C	2000년
3. 음식료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15, 16	2000년
4. 섬유 및 가죽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17, 18, 19	2000년
5. 목재 및 종이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0, 21	2000년
6. 인쇄, 출판 및 복제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2	2000년
7. 석유 및 석탄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3	2000년
8. 화학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4, 25	2000년
9. 비금속광물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6	2000년
10. 제1차 금속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7	2000년
11. 금속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8	2000년
12. 일반기계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29	2000년
13. 전기 및 전자기기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30, 31, 32	2000년
14. 정밀기기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33	2000년
15. 수송장비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34, 35	2000년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36, 37	2000년
17. 전력, 가스 및 수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E	2000년
18. 건설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F	2000년
19. 도소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G	2001년
20. 운수 및 보관	운수업 통계조사 보고서		2000년
21. 통신 및 방송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J	2001년
22. 금융 및 보험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2000년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L, M	2001년
24. 공공행정 및 국방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2000년
25. 교육 및 보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O, P	2001년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Q, R	2001년
27. 기타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2000년

## 2. 부가가치부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부가가치부문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간접세, 보조금으로 구분한 후 전국 부가가치부문의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추

계하였다. 즉 연구대상지역 부가가치부문의 항목간 구성비율과 전국의 부가가치부문 항목간 구성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지역 각 산업별 부가가치 총액에 전국 각 산업의 부가가치부문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각 산업별 부가가치부문을 추계하였다. 예를 들면  $L$ 지역  $i$ 산업의 피용자보수는 식(3·5)와 같이 추계하였다.

$$IN_i^L = VA_i^L \times \frac{IN_i^N}{VA_i^N} \quad (3 \cdot 5)$$

단,  $IN_i^L$  :  $L$ 지역  $i$ 산업의 피용자보수

$VA_i^L$  :  $L$ 지역  $i$ 산업의 부가가치계

$IN_i^N$  : 전국  $i$ 산업의 피용자보수

$VA_i^N$  : 전국  $i$ 산업의 부가가치계

식(3·5)의 피용자보수 부문에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보조금 항목을 적용하면 각 산업별 항목의 값을 추계할 수 있다.

### 3. 고용부문

연구대상지역의 고용유발효과 추정을 위한 고용자수는 한국은행의 '고용표'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즉, 한국은행 고용표의 각 산업별 전국 고용자수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각 산업별 고용자수의 지역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강원도와 제주도의 고용자수를 추계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3·6)과 같다.

$$E_i^L = E_i^N \times \frac{E(S)_i^L}{E(S)_i^N} \quad (3 \cdot 6)$$

단,  $E_i^L$  :  $L$ 지역  $i$ 산업 고용자수

$E_i^N$  : 전국  $i$ 산업 고용자수

$E(S)_i^L$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L$ 지역  $i$ 산업 고용자수

$E(S)_i^N$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전국  $i$ 산업 고용자수

## 제4장 연구대상지역 선정 및 관광현황 분석

### 제1절 연구대상지역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은 지역 관광산업의 특화정도이다. 즉, 관광산업이 지역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가능한 축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경제 자료들이 행정구역 단위로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개발계획도 광역행정구역 단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지역기본단위는 행정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자료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 관광산업의 특화정도, 관광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자료획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결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지역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선정하였다.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로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관광산업의 특화도가 높다고 판단했으며, 타 산업에 비해 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의지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강원도 관광현황 분석

#### 1. 관광객 추이

2002년도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내국인 62,634천명, 외국인 971천명 등 총 63,605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2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도 경제위기

로 인한 내국인 관광객 감소 현상으로 일시적인 관광객 감소가 있었으나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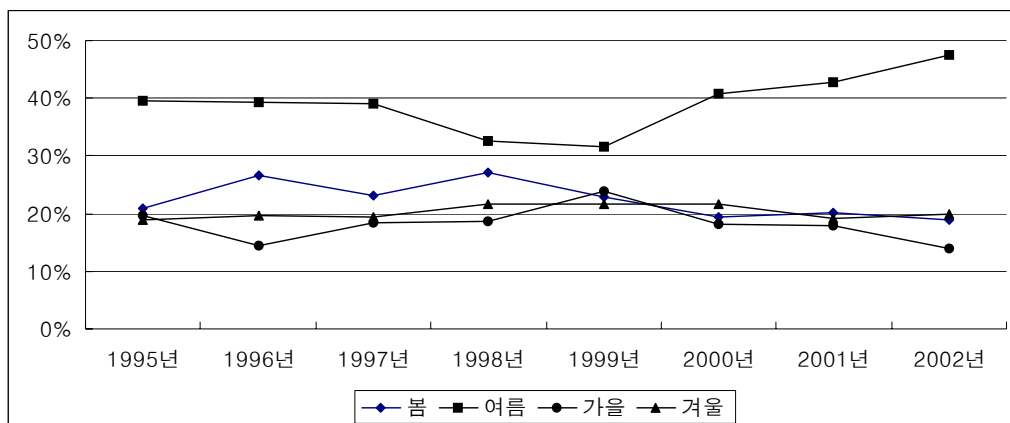
<표 4-1> 강원도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증가율
1993년	22,299	-1.6	22,157	-1.5	142	-11.8
1994년	32,744	46.8	32,451	46.5	293	106.3
1995년	38,564	17.8	38,351	18.2	212	-27.6
1996년	39,305	1.9	39,106	2.0	199	-6.1
1997년	41,189	4.8	40,956	4.7	233	17.1
1998년	38,360	-6.9	37,957	-7.3	403	73.0
1999년	42,489	10.8	41,822	10.2	667	65.5
2000년	49,085	15.5	48,408	15.7	677	1.5
2001년	51,480	4.9	50,717	4.8	763	12.7
2002년	63,605	23.6	62,634	23.5	971	27.3

자료: 강원도청 내부자료(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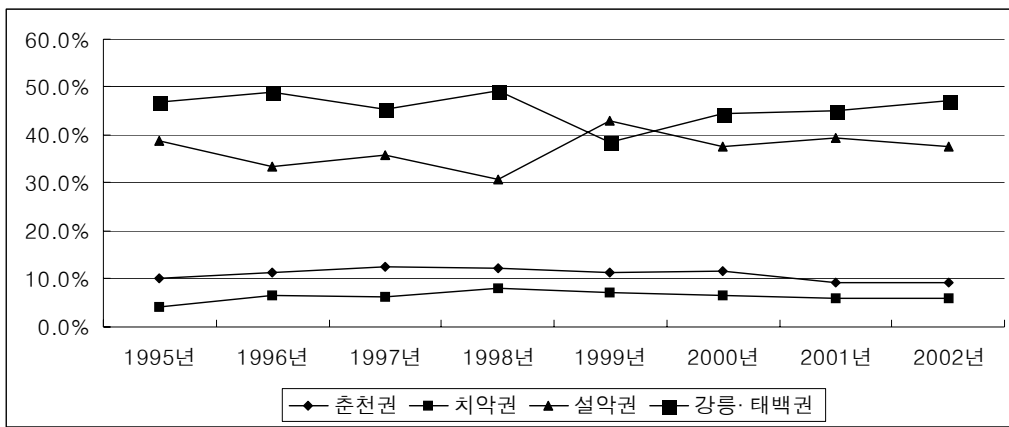
강원도 방문 관광객은 여름철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 경우 여름철(7~8월)에 강원도 연간 관광객의 47.5%가 집중되어 있으며, 겨울철(12~3월) 19.8%, 봄철(4월~6월) 18.8%, 가을철(9~11월) 13.9%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1]). 즉 7월과 8월에 연간 관광객의 약 50%가 집중하는 것이다. 여름철 관광객 구성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을철 관광객 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계절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강원도 관광객 계절별 구성비율



한편 강원도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권역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강원도 관광객의 약 85%가 강릉·태백권(47.3%)과 설악권(37.6%)을 방문하였으며, 춘천권(9.3%)과 치악권(5.3%) 관광객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2]). 이는 관광객이 여름철 해수욕장과 겨울철 스키장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이처럼 관광객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특정지역의 생태적·사회적 수용력을 초과하게 되어 환경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경제적 기여효과가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 4-2] 강원도 관광객 지역별 구성비율

## 2.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2003년 3월 기준 강원도의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243개소, 관광숙박업 74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 7개소, 관광편의시설업 22개소, 카지노업 2개소, 유원시설업 24개소 등 총 372개소로 분석되었다. 이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전국 94개소 중 40개소가 강원도에 위치해 있어 42.6%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합휴양업도 비발디파크, 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등 5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어 전국 대비 38.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가족호텔업(29.4%), 시내순환관광업(27.3%), 카지노업(14.3%), 유원시설업(10.5%) 등도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2&gt; 강원도 관광사업체 현황(2003. 3월 현재)

(단위: 개소, %)

구분		전국(A)	강원도(B)	점유율(B/A)
여행업	국외여행업	3,984	92	2.3
	국내여행업	3,540	136	3.8
	일반여행업	797	15	1.9
	소계	8,321	243	2.9
관광 숙박업	종합관광호텔업	511	29	5.7
	일반관광호텔업	10	0	0.0
	수상관광호텔업	1	0	0.0
	한국전통호텔업	1	0	0.0
	가족호텔업	17	5	29.4
	휴양콘도미니엄업	94	40	42.6
	소계	634	74	11.7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18	1	5.6
	종합휴양업	13	5	38.5
	관광유람선업	9	1	11.1
	관광공연장업	2	0	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17	0	0.0
	소계	159	7	4.4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	102	1	1.0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235	4	1.7
	관광식당업	696	14	2.0
	시내순환관광업	11	3	27.3
	관광사진업	44	0	0.0
	소계	1,088	22	2.0
국제회의기획업	97	0	0.0	
카지노업	14	2	14.3	
유원시설업	229	24	10.5	
총계	10,542	372	3.5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3).

본 연구의 관광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2000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강원도 산업별 종사자수를 정리한 결과 관광산업 종사자수는 94,180명으로 강원도 전체 종사자수의 23.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15.6%)보다 7.5%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광산업은 강원도의 고용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3> 강원도 산업별 종사자수(200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국		강원도	
	종사자수	구성비율	종사자수	구성비율
계	13,688,248	100.0	407,515	100.0
농림수산물	56,108	0.4	2,154	0.5
광산업	21,406	0.2	6,566	1.6
제조업	3,333,018	24.3	43,174	10.6
전력, 가스 및 수도	56,629	0.4	2,872	0.7
건설	640,755	4.7	22,744	5.6
도소매	2,393,372	17.5	69,554	17.1
운수 및 보관	342,479	2.5	8,502	2.1
통신 및 방송	130,831	1.0	5,240	1.3
금융 및 보험	613,580	4.5	21,935	5.4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943,856	6.9	17,098	4.2
공공행정 및 국방	520,932	3.8	26,744	6.6
교육 및 보건	1,409,060	10.3	49,298	12.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13,303	7.4	35,471	8.7
기타	83,974	0.6	1,983	0.5
관광산업	2,128,945	15.6	94,180	23.1

주 : 관광산업은 본 연구의 관광산업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거 재정리

### 3. 관광산업 규모

#### 가. 관광객 지출액

강원도의 관광객 지출액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여행 경비' 자료에 강원도 관광객을 적용하여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관광객 지출액은 1997년 1조 2,545억원에서 2002년 2조 3,493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 내부자료). 한편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1인당 관광비용(109,740원)은 전국 평균(129,210원)의 85%에도 못 미치며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67.6%(전국

204,000원, 강원도 13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은행, 2001).

## 나. 관광산업 비중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농림어업 및 정부서비스 생산자 부문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4>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전국				강원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지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8.4	6.4	4.5	4.0	13.3	10.6	8.7	8.7
광업	0.6	0.3	0.2	0.2	7.7	2.7	2.0	1.7
제조업	31.0	30.3	34.8	33.0	15.5	16.6	16.5	16.0
전기, 가스, 수도사업	2.2	2.2	2.9	3.0	2.9	2.2	2.9	2.7
건설업	11.6	12.1	8.7	9.0	15.7	17.4	16.1	14.8
도소매업	12.1	10.4	9.8	9.6	9.6	9.0	9.6	9.5
음식숙박업	2.6	2.5	2.2	2.4	3.9	5.2	5.6	6.1
운수창고업	4.7	5.1	4.7	4.6	5.4	5.3	4.1	3.9
통신업	2.5	2.2	2.4	2.6	2.4	2.3	2.2	2.4
금융보험업	5.2	6.8	7.6	8.9	3.0	5.3	6.3	7.3
부동산사업서비스	10.3	12.5	12.4	13.2	6.3	7.3	8.7	8.3
사회 및 개인서비스	3.9	4.4	5.0	5.8	3.3	4.6	5.5	7.9
정부서비스생산자	6.1	6.5	6.1	6.4	11.4	12.7	12.0	12.0
민간비영리단체	2.0	2.4	2.5	2.7	1.8	2.5	2.8	3.3
금융귀속서비스	-3.3	-4.1	-3.9	-5.5	-2.3	-3.7	-3.0	-4.5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한편 산업부문 항목중 일반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관광관련산업은 1990년 28.6%에서 2002년 35.6%로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t;표 4-5&gt; 강원도 관광관련산업 지역내총생산 비중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전국	33.6	34.9	34.2	35.7
강원도	28.6	31.5	33.5	35.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제3절 제주도 관광현황 분석

#### 1. 관광객 추이

2002년도 제주도 입도 관광객 수는 내국인 4,226천명, 외국인 289천명 등 총 4,516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관광 감소의 영향으로 일시 급감하였으나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방문 관광객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내국인 관광객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도 전체 관광객수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1993년 이후 증가추세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t;표 4-6&gt; 제주도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증가율
1993년	3,464	1.2	3,187	0.3	277	14.0
1994년	3,693	6.6	3,470	8.9	222	-19.9
1995년	3,997	8.3	3,755	8.2	242	9.0
1996년	4,144	3.7	3,934	4.8	209	-13.6
1997년	4,363	5.3	4,179	6.2	184	-12.0
1998년	3,291	-24.6	3,067	-26.6	224	21.7
1999년	3,667	11.4	3,420	11.5	247	10.3
2000년	4,111	12.1	3,823	11.8	288	16.6
2001년	4,197	2.1	3,908	2.2	290	0.7
2002년	4,516	7.6	4,226	8.1	289	-0.3

자료: 제주도(각년도), 제주 통계연보.

## 2.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2003년 3월 기준 제주도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253개소, 관광숙박업 54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 24개소, 관광편의시설업 21개소, 국제회의기획업 3개소, 카지노업 8개소, 유원시설업 8개소 등 총 371개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전통호텔업(100.0%), 카지노업(57.1%), 전문휴양업(44.4%)의 전국대비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반관광호텔업(10.0%), 휴양콘도미니엄업(10.6%), 관광유람선업(11.1%),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2.8%)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4-7> 제주도 관광사업체 현황(2003. 3월 현재)

(단위: 개소, %)

구분		전국(A)	제주도(B)	점유율(B/A)
여행업	국외여행업	3,984	37	0.9
	국내여행업	3,540	189	5.3
	일반여행업	797	27	3.4
	소계	8,321	253	3.0
관광 숙박업	종합관광호텔업	511	42	8.2
	일반관광호텔업	10	1	10.0
	수상관광호텔업	1	0	0.0
	한국전통호텔업	1	1	100.0
	가족호텔업	17	0	0.0
	휴양콘도미니엄업	94	10	10.6
	소계	634	54	8.5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18	8	44.4
	종합휴양업	13	0	0.0
	관광유람선업	9	1	11.1
	관광공연장업	2	0	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17	15	12.8
	소계	159	24	15.1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	102	0	0.0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235	0	0.0
	관광식당업	696	18	2.6
	시내순환관광업	11	0	0.0
	관광사진업	44	3	6.8
	소계	1,088	21	1.9
국제회의기획업	97	3	3.1	
카지노업	14	8	57.1	
유원시설업	229	8	3.5	
총계	10,542	371	3.5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3).

본 연구의 관광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2000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제주도 산업별 종사자수를 정리한 결과 관광산업 종사자수는 41,740명으로 제주도 전체 종사자수의 27.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15.6%)보다 11.4%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고용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8> 제주도 산업별 종사자수(200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국		제주도	
	종사자수	구성비율	종사자수	구성비율
계	13,688,248	100.0	154,391	100.0
농림수산물	56,108	0.4	8,351	5.4
광산품	21,406	0.2	180	0.1
제조업	3,333,018	24.3	7,404	4.8
전력, 가스 및 수도	56,629	0.4	782	0.5
건설	640,755	4.7	9,286	6.0
도소매	2,393,372	17.5	27,222	17.6
운수 및 보관	342,479	2.5	2,353	1.5
통신 및 방송	130,831	1.0	1,090	0.7
금융 및 보험	613,580	4.5	8,791	5.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943,856	6.9	5,218	3.4
공공행정 및 국방	520,932	3.8	10,737	7.0
교육 및 보건	1,409,060	10.3	17,571	11.4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13,303	7.4	13,280	8.6
기타	83,974	0.6	386	0.3
관광산업	2,128,945	15.6	41,740	27.0

주 : 관광산업은 본 연구의 관광산업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거 재정리

### 3. 관광산업 규모

#### 가. 관광객 지출액

제주도의 관광객 지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1998년 관광객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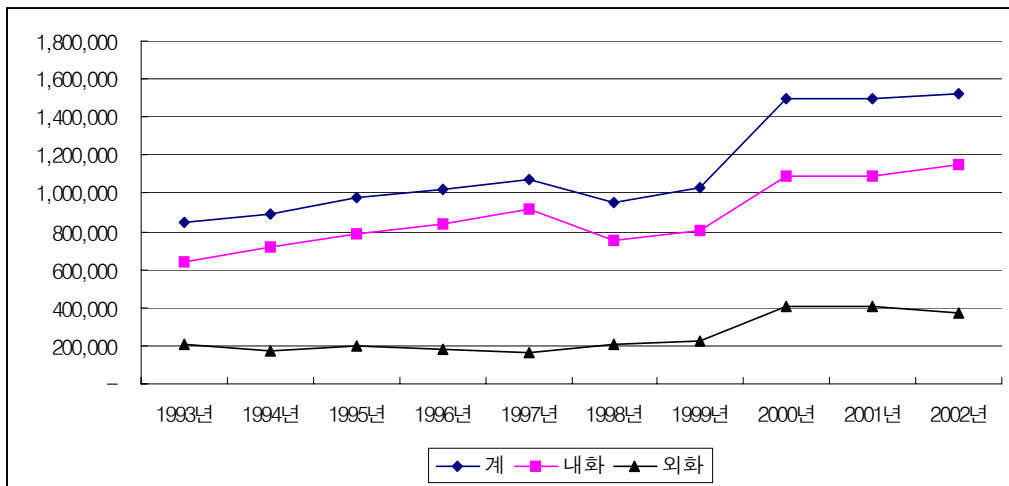
소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0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광객은 증가하나 관광객 지출액은 정체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2000년 지출액이 급증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9>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내화		외화	
	관광객 지출액	증가율	관광객 지출액	증가율	관광객 지출액	증가율
1993년	851,574	6.8	644,226	3.6	207,348	18.2
1994년	889,486	4.5	715,262	11.0	174,224	-16.0
1995년	981,429	10.3	784,430	9.7	196,999	13.1
1996년	1,017,945	3.7	839,980	7.1	177,965	-9.7
1997년	1,075,569	5.7	914,261	8.8	161,308	-9.4
1998년	955,812	-11.1	752,310	-17.7	203,502	26.2
1999년	1,029,547	7.7	803,706	6.8	225,841	11.0
2000년	1,497,537	45.5	1,087,670	35.3	409,867	81.5
2001년	1,495,405	-0.1	1,091,651	0.4	403,754	-1.5
2002년	1,526,556	2.1	1,152,503	5.6	374,053	-7.4

자료: 제주도(각년도), 제주 통계연보.



[그림 4-3]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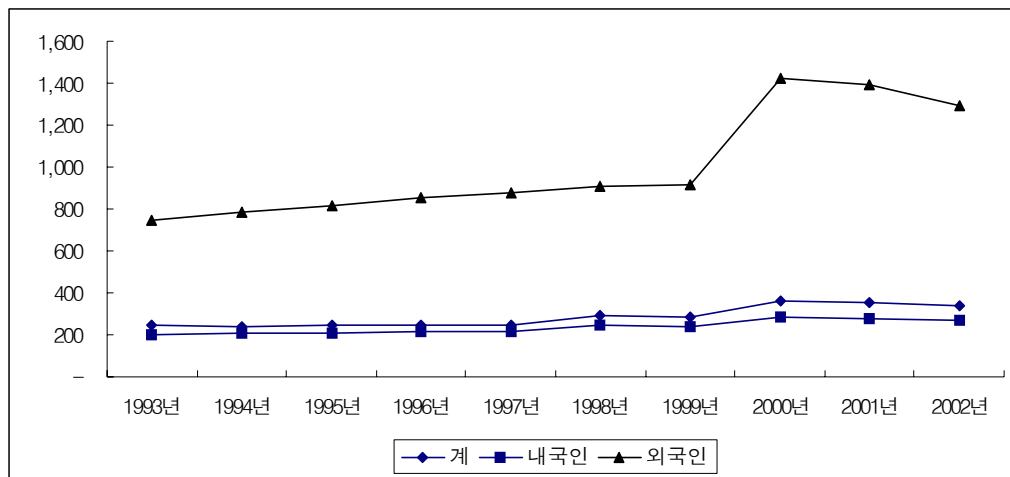


관광객 지출액을 관광객 수로 나눈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2년 기준 338천원으로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1993년부터 10년간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소폭 상승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0년 1,421천원을 정점으로 내국인 관광객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제주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단위: 천원)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1993년	246	202	748
1994년	241	206	783
1995년	246	209	814
1996년	246	213	850
1997년	247	219	875
1998년	290	245	910
1999년	281	235	914
2000년	364	285	1,421
2001년	356	279	1,392
2002년	338	273	1,292



[그림 4-4] 제주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추이

## 나. 관광산업 비중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전국평균의 1/10 수준의 산업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11> 제주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전국				제주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지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8.4	6.4	4.5	4.0	32.5	31.0	22.3	17.7
광업	0.6	0.3	0.2	0.2	0.2	0.3	0.3	0.2
제조업	31.0	30.3	34.8	33.0	4.5	3.5	3.5	3.4
전기가스수도사업	2.2	2.2	2.9	3.0	1.2	1.2	1.5	1.7
건설업	11.6	12.1	8.7	9.0	13.9	12.1	12.9	12.4
도소매업	12.1	10.4	9.8	9.6	12.1	10.1	11.6	11.9
음식숙박업	2.6	2.5	2.2	2.4	5.3	6.8	7.6	8.3
운수창고	4.7	5.1	4.7	4.6	4.5	6.2	5.5	5.5
통신업	2.5	2.2	2.4	2.6	2.7	2.2	2.2	2.6
금융보험업	5.2	6.8	7.6	8.9	4.5	6.9	6.2	8.8
부동산사업서비스	10.3	12.5	12.4	13.2	6.4	8.2	9.4	9.7
사회 및 개인서비스	3.9	4.4	5.0	5.8	4.5	5.1	7.9	10.5
정부서비스생산자	6.1	6.5	6.1	6.4	9.5	9.7	10.0	10.9
민간비영리단체	2.0	2.4	2.5	2.7	1.3	1.7	1.9	2.1
금융귀속서비스	-3.3	-4.1	-3.9	-5.5	-3.1	-4.9	-2.9	-5.5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한편 산업부문 항목 중 일반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지역은 1990년 전국평균과 유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2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제주도 관광관련산업 지역내총생산 비중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전국	33.6	34.9	34.2	35.7
제주도	32.8	36.4	42.1	45.8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제4절 강원도와 제주도 비교·분석

### 1. 관광객 증가율

강원도는 관광이동총량 개념으로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반면 제주도는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순수 입도객을 기준으로 관광객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두 지역의 관광객 총량에 대한 비교는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지역 관광객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두 지역의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강원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로 제주도(3.4%)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가 성우리조트 및 휘닉스파크 개장(1995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1999년),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2000년) 등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 정책을 추진한 반면, 제주도는 불리한 접근성, 추가적인 관광자원 개발 미진 등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저하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싼 항공요금 등으로 제주도 관광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여행경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주체의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제주도 관광객은 큰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강원도의 관광객 수가 6.9% 감소한 반면 제주도 관광객 수는 24.6%나 감소한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표 4-13> 관광객 증가율 비교

(단위: %)

구분	강원도			제주도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1993년	-1.6	-1.5	-11.8	1.2	0.3	14.0
1994년	46.8	46.5	106.3	6.6	8.9	-19.9
1995년	17.8	18.2	-27.6	8.3	8.2	9.0
1996년	1.9	2.0	-6.1	3.7	4.8	-13.6
1997년	4.8	4.7	17.1	5.3	6.2	-12.0
1998년	-6.9	-7.3	73.0	-24.6	-26.6	21.7
1999년	10.8	10.2	65.5	11.4	11.5	10.3
2000년	15.5	15.7	1.5	12.1	11.8	16.6
2001년	4.9	4.8	12.7	2.1	2.2	0.7
2002년	23.6	23.5	27.3	7.6	8.1	-0.3
연평균	11.8	11.7	25.8	3.4	3.5	2.7

## 2.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사업체수는 각각 약 370개소로 유사하나 강원도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종합휴양업, 시내순환관광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제주도는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카지노업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두 지역의 카지노업(71.4%), 휴양콘도미니엄업(53.2%), 전문휴양업(50.0%)은 전국시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관광사업체 현황(2003. 3월 현재)

(단위: 개소, %)

구분	강원도		제주도		
	사업체수	전국대비 점유율	사업체수	전국대비 점유율	
여행업	국외여행업	92	2.3	37	0.9
	국내여행업	136	3.8	189	5.3
	일반여행업	15	1.9	27	3.4
	소계	243	2.9	253	3.0
관광숙박업	종합관광호텔업	29	5.7	42	8.2
	일반관광호텔업	0	0.0	1	10.0
	수상관광호텔업	0	0.0	0	0.0
	한국전통호텔업	0	0.0	1	100.0
	가족호텔업	5	29.4	0	0.0
	휴양콘도미니엄업	40	42.6	10	10.6
	소계	74	11.7	54	8.5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1	5.6	8	44.4
	종합휴양업	5	38.5	0	0.0
	관광유람선업	1	11.1	1	11.1
	관광공연장업	0	0.0	0	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0	0.0	15	12.8
	소계	7	4.4	24	15.1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	1	1.0	0	0.0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4	1.7	0	0.0
	관광식당업	14	2.0	18	2.6
	시내순환관광업	3	27.3	0	0.0
	관광사진업	0	0.0	3	6.8
	소계	22	2.0	21	1.9
국제회의기획업	0	0.0	3	3.1	
카지노업	2	14.3	8	57.1	
유원시설업	24	10.5	8	3.5	
총계	372	3.5	371	3.5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3).

강원도와 제주도의 산업별 종사자수 구성비율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두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수 구성비율은 낮은 반면 관광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부문에 있어서 관광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강원도에 비해서 농림수산물과 관광산업의 종사자수 구성비율이 높고, 강원도는 광산업 및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산업별 종사자수 구성비율(2000년 기준)

(단위: %)

구분	전국	강원도	제주도
계	100.0	100.0	100.0
농림수산물	0.4	0.5	5.4
광산업	0.2	1.6	0.1
제조업	24.3	10.6	4.8
전력, 가스 및 수도	0.4	0.7	0.5
건설	4.7	5.6	6.0
도소매	17.5	17.1	17.6
운수 및 보관	2.5	2.1	1.5
통신 및 방송	1.0	1.3	0.7
금융 및 보험	4.5	5.4	5.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6.9	4.2	3.4
공공행정 및 국방	3.8	6.6	7.0
교육 및 보건	10.3	12.1	11.4
사회 및 기타 서비스	7.4	8.7	8.6
기타	0.6	0.5	0.3
관광산업	15.6	23.1	27.0

주 : 관광산업은 본 연구의 관광산업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거 재정리

### 3. 관광산업 규모

#### 가. 관광객 지출액

강원도의 관광객 지출액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므로 두 지역의 관광객 지출액을 상호 비교·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강원도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여행 경비' 자료를 적용하여 추정한 강원도의 숙박관광객 1인 1일 평균 지출액은 전국평균의 85%, 제주도 평균의 6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강원도는 많은 관광

객이 방문하지만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전국평균 미만인 저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관광산업 비중

전국,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 중 관광관련산업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제주도가 4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경우 1990년 33.6%에서 2002년 35.7%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1990년 28.6%에서 2002년 35.6%로, 제주도는 1990년 32.8%에서 2002년 45.8%로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면서 관광관련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4-16> 관광관련산업 지역내총생산 비중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전국	33.6	34.9	34.2	35.7
강원도	28.6	31.5	33.5	35.6
제주도	32.8	36.4	42.1	45.8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제5장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 제1절 입지상계수 분석

입지상계수는 전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역 특정 산업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계수로서 전국대비 지역 산업의 특화정도를 의미한다. 입지상계수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의 특정 산업은 전국에 비해 특화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전국에 비해 특화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 1. 강원도 입지상계수

산업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입지상계수를 분석한 결과 관광산업의 입지상계수는 '1'보다 큰 2.26으로 전국에 비해 특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에서 관광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관광산업의 경우 여객운송과 여행업을 제외한 8개 부문에서 입지상계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오락·유흥(4.58), 숙박(4.33), 소매(2.67), 식음료(2.28) 부문은 상대적 특화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림수산물, 음식료품과 서비스산업 부문의 입지상계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 관련 산업의 입지상계수는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 전 산업차원에서는 광산품(15.49)과 비금속광물제품(5.77) 등의 입지상계수가 높게 나타나 광산관련 산업이 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제주도 입지상계수

제주도의 관광산업 입지상계수는 3.59로 전국대비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운수보조를 제외한 9개 부문에서 '1'보다 큰 값을 보였다. 특히 운동·경기(32.14), 숙박(9.16), 차량임대(6.85), 문화공연(6.17) 등의 특화

&lt;표 5-1&gt; 강원도 및 제주도 입지상계수

(단위: 10억원, %)

구분	생산액						입지상계수	
	전국	비율	강원도	비율	제주도	비율	강원도	제주도
계	1,448,202	100.0	28,049	100.0	9,969	100.0	-	-
1. 농림수산물	22,686	1.57	1,115	3.97	1,072	10.75	2.54	6.86
2. 광산품	1,694	0.12	508	1.81	24	0.24	15.49	2.07
3. 음식료품	41,129	2.84	2,000	7.13	266	2.67	2.51	0.94
4. 섬유 및 가죽제품	40,999	2.83	89	0.32	3	0.03	0.11	0.01
5. 목재 및 종이제품	16,582	1.15	79	0.28	33	0.33	0.25	0.29
6. 인쇄, 출판 및 복제	9,804	0.68	49	0.18	29	0.29	0.26	0.42
7. 석유 및 석탄제품	40,158	2.77	10	0.04	0	0.00	0.01	0.00
8. 화학제품	77,502	5.35	382	1.36	36	0.36	0.25	0.07
9. 비금속광물제품	16,983	1.17	1,899	6.77	146	1.47	5.77	1.25
10. 제1차 금속	44,591	3.08	112	0.40	2	0.02	0.13	0.01
11. 금속제품	20,309	1.40	136	0.49	14	0.15	0.35	0.10
12. 일반기계	42,414	2.93	166	0.59	5	0.05	0.20	0.02
13. 전기 및 전자기기	127,357	8.79	290	1.03	3	0.03	0.12	0.00
14. 정밀기기	5,132	0.35	267	0.95	0	0.00	2.69	0.01
15. 수송장비	72,604	5.01	592	2.11	2	0.02	0.42	0.00
16. 가구 및 제조업제품	9,270	0.64	82	0.29	3	0.03	0.45	0.04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4,695	1.01	369	1.31	72	0.72	1.29	0.71
18. 건설	43,785	3.02	2,076	7.40	619	6.21	2.45	2.05
19. 도소매	396,015	27.35	6,684	23.83	3,041	30.50	0.87	1.12
20. 운수 및 보관	32,495	2.24	296	1.06	105	1.06	0.47	0.47
21. 통신 및 방송	35,890	2.48	1,055	3.76	216	2.17	1.52	0.88
22. 금융 및 보험	38,079	2.63	814	2.90	297	2.98	1.10	1.13
23. 부동산및사업 서비스	73,532	5.08	582	2.07	215	2.16	0.41	0.43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540	1.07	750	2.67	247	2.48	2.49	2.31
25. 교육 및 보건	62,965	4.35	2,094	7.47	646	6.48	1.72	1.49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4,935	2.41	888	3.16	348	3.49	1.31	1.45
27. 기타	12,729	0.88	367	1.31	89	0.89	1.49	1.02
28. 관광산업	98,329	6.79	4,298	15.32	2,433	24.41	2.26	3.59
28-1. 숙박	5,296	0.37	444	1.58	334	3.35	4.33	9.16
28-2. 식음료	35,793	2.47	1,579	5.63	642	6.44	2.28	2.61
28-3. 여객운송	18,986	1.31	279	1.00	139	1.39	0.76	1.06
28-4. 운수보조	2,644	0.18	75	0.27	1	0.01	1.47	0.04
28-5. 차량임대	283	0.02	6	0.02	13	0.13	1.11	6.85
28-6. 여행업	510	0.04	4	0.01	8	0.08	0.42	2.21
28-7. 문화공연	664	0.05	15	0.05	28	0.28	1.13	6.17
28-8. 운동·경기	3,981	0.27	129	0.46	881	8.83	1.67	32.14
28-9. 오락·유흥	5,536	0.38	491	1.75	63	0.63	4.58	1.65
28-10. 소매	24,635	1.70	1,275	4.54	325	3.26	2.67	1.91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문의 입지상계수가 낮게 나타나 산업의 특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 전체 산업 측면에서는 농림수산품의 입지상계수(6.86)가 높아 감귤 등의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관광산업의 입지상계수는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강원도보다 크게 나타나 특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0개 세부 관광산업 중 강원도는 운수보조, 오락·유희, 소매 부문에서만 상대적 특화정도가 높았으며 나머지 부문에서는 제주도의 상대적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2절 전국 산업별 승수효과

### 1.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 가. 생산유발승수

생산유발승수는 투입계수행렬의 역행렬계수 합에 의해 도출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산업의 평균 생산유발승수는 1.850736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수요부문에서 1백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약 1,850,736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가 국민경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5-2>). 산업별로 보면 기타부문의 생산유발승수(2.431900)가 가장 높고, 수송장비업(2.364434), 인쇄 출판 및 복제(2.229848), 제1차 금속(2.1943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1.692579로 전산업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5)</sup>. 1995년 기준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1.569873)와 비교해 보면 2000년 기준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함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5)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 산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의존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최종수요형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관광산업은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비교적 약하여 생산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1995년 기준 산업연관분석 유발승수는 이강욱·류광훈(1999)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lt;표 5-2&gt; 전국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643132	20	0.171775	26	0.067979	1
2. 광산물	1.594694	21	0.317567	18	0.014071	21
3. 음식료품	2.107157	7	0.215886	23	0.036084	5
4. 섬유 및 가죽제품	2.069268	8	0.335307	10	0.021858	11
5. 목재 및 종이제품	1.947088	15	0.255915	20	0.015138	18
6. 인쇄, 출판 및 복제	2.229848	3	0.403250	7	0.026339	8
7. 석유 및 석탄제품	1.136835	28	0.045118	28	0.001527	28
8. 화학제품	2.024245	10	0.241566	22	0.011762	22
9. 비금속광물제품	2.026812	9	0.329018	13	0.015535	17
10. 제1차 금속	2.194363	4	0.203375	24	0.008274	26
11. 금속제품	2.151324	5	0.345771	9	0.019042	14
12. 일반기계	2.141586	6	0.323849	16	0.016499	16
13. 전기 및 전자기기	1.712754	17	0.200758	25	0.010180	24
14. 정밀기기	2.013610	11	0.324085	15	0.019294	13
15. 수송장비	2.364434	2	0.320071	17	0.014410	19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91854	13	0.333696	12	0.022820	9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499384	24	0.154132	27	0.005914	27
18. 건설	1.995777	12	0.427358	5	0.021862	10
19. 도소매	1.477491	26	0.372478	8	0.037038	4
20. 운수 및 보관	1.729002	16	0.463795	4	0.026928	7
21. 통신 및 방송	1.656360	19	0.326866	14	0.009655	25
22. 금융 및 보험	1.484544	25	0.506600	3	0.016641	1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72169	27	0.264290	19	0.011306	23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18444	23	0.565334	2	0.021764	12
25. 교육 및 보건	1.560163	22	0.650176	1	0.027375	6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953781	14	0.415092	6	0.047723	2
27. 기타	2.431900	1	0.253031	21	0.014294	20
28. 관광산업	1.692579	18	0.333703	11	0.042273	3
전산업평균	1.850736		0.324995		0.021557	

## 나. 소득유발승수

산업연관표 부가가치부문의 “피용자보수”는 개인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의 추가적인 발생으로 인해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유발효과를 의미하는 소득유발승수를 도출할 수 있다.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소득유발승수를 보면 교육 및 보건이 0.6501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행정 및 국방(0.565334), 금융 및 보험(0.506600), 운수 및 보관(0.4637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농림수산물 부문은 매우 낮은 소득유발승수를 보이고 있다(<표 5-2>).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는 0.333703으로 전산업 평균 소득유발승수(0.324995)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기준 산업연관표의 관광산업 소득유발승수(0.380273) 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후반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관광사업체의 임금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다. 고용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주어졌을 때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효과를 의미한다. 2000년 기준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승수는 0.021557로 1995년 기준 산업연관분석의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승수 0.029051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이 가장 높은 0.067979의 승수를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0.042273으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고용유발승수의 순위에서 3위로 나타났다. 1995년 산업연관분석의 관광산업 고용유발승수(0.062067)와 비교해보면 2000년의 고용유발승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지난 5년간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부가가치 · 순간접세 · 수입유발승수

### 가. 부가가치유발승수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로 구성 되어 있다. 부가가치유발승수는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각 산업에 파급된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의미하며, 2000년도 기준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756211로 나타나고 있다(<표 5-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0.949271)의 부가가치유발승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0.948606), 교육 및 보건(0.8944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서비스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796734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전체 28개 산업 중에서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도 산업연관분석의 관광산업 부가가치유발승수(0.855081) 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유발승수의 하락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 부문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표 5-3> 전국 산업별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891314	6	0.044999	20	0.108686	23
2. 광산물	0.893055	4	0.040529	21	0.106945	25
3. 음식료품	0.802415	12	0.133675	2	0.197585	17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3038	20	0.039821	22	0.316962	9
5. 목재 및 종이제품	0.616977	25	0.036040	23	0.383023	4
6. 인쇄, 출판 및 복제	0.781963	14	0.046830	18	0.218037	15
7. 석유 및 석탄제품	0.384577	28	0.229008	1	0.615423	1
8. 화학제품	0.619759	24	0.046405	19	0.380241	5
9. 비금속광물제품	0.781308	15	0.049652	16	0.218692	14
10. 제1차 금속	0.580971	26	0.031382	25	0.419029	3
11. 금속제품	0.719709	16	0.032832	24	0.280291	13
12. 일반기계	0.703270	18	0.057192	12	0.296730	11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39456	27	0.028773	26	0.460544	2
14. 정밀기기	0.659615	23	0.052055	14	0.340385	6
15. 수송장비	0.690696	19	0.075448	9	0.309304	1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07261	17	0.047072	17	0.292739	1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74433	22	0.056791	13	0.325567	7
18. 건설	0.831968	10	0.068472	10	0.168032	19
19. 도소매	0.888032	7	0.051637	15	0.111968	22
20. 운수 및 보관	0.820204	11	0.084305	5	0.179796	18
21. 통신 및 방송	0.891330	5	0.076190	8	0.108670	24
22. 금융 및 보험	0.948606	2	0.086428	4	0.051394	27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49271	1	0.096106	3	0.050729	28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85022	8	0.021394	28	0.114978	21
25. 교육 및 보건	0.894458	3	0.024478	27	0.105542	26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860476	9	0.076730	7	0.139524	20
27. 기타	0.677975	21	0.062597	11	0.322025	8
28. 관광산업	0.796734	13	0.082394	6	0.203266	16
전산업평균	0.756211		0.063544		0.243789	

## 나. 순간접세유발승수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활동으로 과급되는 직·간접 조세유발효과를 의미하는 순간접세유발승수의 2000년 전산업 평균은 0.063544로 1995년 전산업 평균 0.0502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순간접세유발승수는 석유 및 석탄산업(0.229008), 음식료품(0.133675),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0.096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순간접세유발승수는 0.082394로 1995년 관광산업 순간접세유발승수인 0.055781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광산업과 함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순간접세유발승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 수입유발승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체산업 생산활동에 중간재로서 국산품과 수입품이 투입된다. 이때 유발되는 수입을 의미하는 수입유발승수의 2000년 기준 전산업 평균은 0.243789로 1995년의 수입유발승수(0.21227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3>). 산업부문별로 보면 석유 및 석탄제품업(0.615423), 전기 및 전자기기(0.460544), 제1차 금속(0.419029), 목재 및 종이제품업(0.383023) 등의 순으로 높은 수입유발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는 0.203266으로 전체 28개 산업부문 중 16위에 해당되고 전산업 평균 수입유발승수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995년도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0.144919) 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도 점차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3. 산업부문간 연관효과 분석

### 가. 영향력계수

영향력계수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

키기 위해 타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각산업의 생산유발승수의 열 합계를 전산업 생산유발승수의 열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며 생산유발승수가 클수록 영향력계수도 크게 나타난다. 전체 산업 중에서 영향력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생산유발승수와 같이 기타부문(1.314018)이며, 수송장비(1.277564), 인쇄 출판 및 복제(1.204844), 제1차 금속(1.1856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등 서비스 관련 산업들의 영향력계수가 '1'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전국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887826	20	0.964076	11
2. 광산물	0.861654	21	0.640167	24
3. 음식료품	1.138551	7	0.926809	13
4. 섬유 및 가죽제품	1.118079	8	0.851837	17
5. 목재 및 종이제품	1.052061	15	1.226020	7
6. 인쇄, 출판 및 복제	1.204844	3	0.724859	21
7. 석유 및 석탄제품	0.614261	28	1.279623	6
8. 화학제품	1.093752	10	1.896033	1
9. 비금속광물제품	1.095139	9	0.824342	19
10. 제1차 금속	1.185671	4	1.766707	2
11. 금속제품	1.162415	5	0.840262	18
12. 일반기계	1.157154	6	0.887499	15
13. 전기 및 전자기기	0.925445	17	1.043689	10
14. 정밀기기	1.088005	11	0.626553	25
15. 수송장비	1.277564	2	0.926291	1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076250	13	0.606357	2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810156	24	1.074650	9
18. 건설	1.078370	12	0.681919	22
19. 도소매	0.798327	26	0.867860	16
20. 운수 및 보관	0.934224	16	0.667417	23
21. 통신 및 방송	0.894974	19	0.948149	12
22. 금융 및 보험	0.802137	25	1.329319	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795451	27	1.588885	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20454	23	0.540326	28
25. 교육 및 보건	0.842996	22	0.796463	20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55678	14	0.594248	27
27. 기타	1.314018	1	1.131718	8
28. 관광산업	0.914544	18	1.747921	3

관광산업 또한 서비스 산업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영향력계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이 성격상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생산에 따른 산업과 급효과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나. 감응도계수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특정 산업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한다. 즉, 타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화학제품(1.896033), 제1차금속(1.766707), 관광산업(1.747921),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1.5888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간주되는 관광산업이 타 산업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감응도계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에 포함된 운송업 부문이 타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 부문이 관광산업 전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절 강원도 및 제주도 산업별 승수효과

### 1. 강원도 산업별 승수효과

#### 가.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강원도의 관광산업 생산유발승수는 1.441622로 강원도 전산업 평균(1.3802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타부문(1.985876), 음식료품(1.818355), 비금속광물제품(1.659077) 등의 순으로 생산유발승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관련 부문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5-5>). 한편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도출된 각종 유발승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생산유발승수의 경우 전국단위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의 승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단위에서 최종생산물에 대한 원재료 투입비중과 산업간의 연계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유발승수는 지역산업연관구조에서 원재료 투입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높게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유발

승수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강원도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0.358878)는 강원도 전산업의 평균(0.356696)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국단위로 분석한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0.333703)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관광산업 소득유발효과는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관련 산업인 교육 및 보건(0.722761),

<표 5-5> 강원도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381126	10	0.163644	26	0.067150	1
2. 광산품	1.345736	13	0.342098	17	0.013847	19
3. 음식료품	1.818355	2	0.211828	23	0.035929	7
4. 섬유 및 가죽제품	1.268966	25	0.364758	13	0.029006	8
5. 목재 및 종이제품	1.314706	17	0.254506	20	0.024415	13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15852	8	0.520649	5	0.038281	6
7. 석유 및 석탄제품	1.057805	28	0.040109	28	0.006323	27
8. 화학제품	1.323864	14	0.245968	21	0.011776	21
9. 비금속광물제품	1.659077	3	0.373035	11	0.011309	23
10. 제1차 금속	1.241989	26	0.193793	24	0.004776	28
11. 금속제품	1.276919	23	0.430872	8	0.019576	15
12. 일반기계	1.285941	22	0.367488	12	0.014768	18
13. 전기 및 전자기기	1.219151	27	0.188259	25	0.013146	20
14. 정밀기기	1.441991	5	0.359654	14	0.009309	24
15. 수송장비	1.376051	11	0.354332	16	0.009052	25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320096	16	0.376660	10	0.028659	1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303865	20	0.157081	27	0.008032	26
18. 건설	1.412442	9	0.513828	6	0.015923	17
19. 도소매	1.306559	19	0.389206	9	0.059298	2
20. 운수 및 보관	1.323847	15	0.602936	3	0.058658	3
21. 통신 및 방송	1.483488	4	0.334768	18	0.011651	22
22. 금융 및 보험	1.348820	12	0.525995	4	0.024436	12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308603	18	0.268365	19	0.018751	16
24. 공공행정 및 국방	1.287622	21	0.604367	2	0.021255	14
25. 교육 및 보건	1.269945	24	0.722761	1	0.027191	1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426650	7	0.489963	7	0.058626	4
27. 기타	1.985876	1	0.231690	22	0.028884	9
28. 관광산업	1.441622	6	0.358878	15	0.045711	5
전산업 평균	1.380249		0.356696		0.025562	

7) 김태보(1990)에서도 제주도 산업의 대부분이 전국 산업의 부가가치비율보다 같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행정 및 국방(0.604367) 등에서 비교적 높은 소득유발승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농림수산물 등의 소득유발승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관광산업의 고용유발승수는 0.045711로 강원도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승수(0.025562) 보다 높으며, 강원도 28개 산업 중 5위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0.067150), 도소매(0.059298), 운수 및 보관(0.058658) 등이며,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산업의 고용유발승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강원도 내 관광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세부 관광산업의 각 유발승수를 비교해 보면, 생산유발승수의 경우 식음료(1.764389), 문화공연(1.538634), 오락·유흥(1.478475), 차량임대(1.454541) 등은 37개 전산업 평균과 세부 관광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6>). 반면에 숙박(1.308386), 여객운송(1.194294), 운수보조(1.176199), 소매(1.375497) 등은 세부 관광산업의 평균치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숙박부문을 제외하고는 입지상계수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소득유발승수는 숙박(0.465655), 여행업(0.516388), 문화공연(0.500170), 오락·유흥(0.4619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발승수는 오락·유흥(0.064806), 식음료(0.050195), 소매(0.049753)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운수보조(0.010156), 차량임

<표 5-6>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28-1. 숙박	1.308386	25	0.465655	10	0.039122	9
28-2. 식음료	1.764389	3	0.386617	14	0.050195	6
28-3. 여객운송	1.194294	35	0.300440	26	0.035123	13
28-4. 운수보조	1.176199	36	0.320116	25	0.010156	32
28-5. 차량임대	1.454541	8	0.233490	31	0.012436	27
28-6. 여행업	1.327215	20	0.516388	6	0.042803	8
28-7. 문화공연	1.538634	5	0.500170	8	0.023523	20
28-8. 운동·경기	1.345435	18	0.380750	15	0.036239	11
28-9. 오락·유흥	1.478475	7	0.461924	11	0.064806	2
28-10. 소매	1.375497	14	0.370970	18	0.049753	7
관광산업 평균	1.396307	-	0.393652	-	0.036416	-
전산업 평균	1.387185	-	0.366451	-	0.027655	-

주: 1) 관광산업 평균은 세부 관광산업(28-1 ~ 28-10)의 평균임

2) 전산업 평균은 37개 산업(10개 세부 관광산업과 27개 기타 산업) 유발승수의 평균값으로 28개 산업(1개 관광산업과 27개 기타 산업)으로 분류했을 때의 전산업 평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대(0.012436)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유발승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면 강원도의 여객운송, 운수보조 관련 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나.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강원도의 관광산업 부가가치유발승수는 강원도 전산업 평균(0.779235)과 전국

<표 5-7> 강원도 산업별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931618	6	0.036075	17	0.068382	23
2. 광산품	0.945575	3	0.022077	24	0.054425	26
3. 음식료품	0.823988	14	0.143184	2	0.176012	15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0681	21	0.026781	19	0.319319	8
5. 목재 및 종이제품	0.594833	25	0.022762	21	0.405167	4
6. 인쇄, 출판 및 복제	0.856277	12	0.035919	18	0.143723	17
7. 석유 및 석탄제품	0.376958	28	0.232480	1	0.623042	1
8. 화학제품	0.606051	24	0.022222	23	0.393949	5
9. 비금속광물제품	0.838494	13	0.023859	20	0.161506	16
10. 제1차 금속	0.555817	26	0.011882	27	0.444183	3
11. 금속제품	0.786496	16	0.019212	25	0.213504	13
12. 일반기계	0.734922	17	0.060228	10	0.265078	12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10612	27	0.022299	22	0.489388	2
14. 정밀기기	0.657018	22	0.052129	11	0.342982	7
15. 수송장비	0.707162	19	0.090751	4	0.292838	1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28609	18	0.040059	16	0.271391	1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94202	20	0.044252	14	0.305798	9
18. 건설	0.904069	9	0.070813	9	0.095931	20
19. 도소매	0.900175	11	0.043685	15	0.099825	18
20. 운수 및 보관	0.941962	4	0.048406	13	0.058038	25
21. 통신 및 방송	0.901819	10	0.074180	6	0.098181	19
22. 금융 및 보험	0.956814	2	0.085162	5	0.043186	27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64853	1	0.096318	3	0.035147	28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07453	8	0.011394	28	0.092547	21
25. 교육 및 보건	0.931979	5	0.014161	26	0.068021	2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918822	7	0.072640	8	0.081178	22
27. 기타	0.645026	23	0.050368	12	0.354974	6
28. 관광산업	0.816288	15	0.073656	7	0.183712	14
전산업 평균	0.779235		0.055248		0.220765	

산업평균(0.756211)보다 높은 0.816288로써 28개 산업 중 15위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0.964853), 금융 및 보험(0.956814), 광산품(0.94557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1차 산업인 농림수산물, 광산품과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제3차 산업부문에서 높은 부가가치유발승수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간접세유발승수의 경우 관광산업은 0.073656으로 전산업 평균(0.055248)보다 높아 관광산업은 강원도의 세수 증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는 0.183712로 전산업 평균(0.220765)보다 낮게 나타나 관광산업의 외부의존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석유 및 석탄제품(0.623042), 전기 및 전자기기(0.489388), 제1차금속(0.444183)은 외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여객운송(0.528900)을 제외한 운수보조(0.976340), 차량임대(0.960990), 숙박(0.950305)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강원도에서 관광산업은 중요한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순간접세유발승수의 경우 운동·경기(0.353977), 식음료(0.112463)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운수보조(0.014431), 여객운송(0.022349), 여행업(0.026257) 등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유발승수를 살펴보면 여객운송(0.471100), 식음료(0.143969), 문화공연(0.107974) 등은 세부 관광산

<표 5-8>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28-1. 숙박	0.950305	8	0.048701	16	0.049695	30
28-2. 식음료	0.856031	21	0.112463	4	0.143969	17
28-3. 여객운송	0.528900	35	0.022349	29	0.471100	3
28-4. 운수보조	0.976340	1	0.014431	34	0.023660	37
28-5. 차량임대	0.960990	3	0.029155	24	0.039010	35
28-6. 여행업	0.955703	5	0.026257	26	0.044297	33
28-7. 문화공연	0.892026	19	0.030492	23	0.107974	19
28-8. 운동·경기	0.939063	10	0.353977	1	0.060937	28
28-9. 오락·유희	0.935088	11	0.065268	13	0.064912	27
28-10. 소매	0.947964	9	0.074859	8	0.052036	29
관광산업 평균	0.894241	-	0.077795	-	0.105759	-
전산업 평균	0.811871	-	0.060890	-	0.188129	-

주: <표 5-6> 주 참조

업의 평균보다 높아 지역외부 누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운수보조(0.023660), 차량임대(0.039010), 여행업(0.04429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유발승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여객운송의 경우 외부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타 관광산업은 비교적 강원도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강원도 전체 산업중에서 영향력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생산유발승수의 순위

<표 5-9> 강원도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000635	10	1.265696	4
2. 광산품	0.974996	13	0.841847	16
3. 음식료품	1.317411	2	1.204352	6
4. 섬유 및 가죽제품	0.919375	25	0.758169	26
5. 목재 및 종이제품	0.952514	17	0.880937	14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25795	8	0.774213	24
7. 석유 및 석탄제품	0.766387	28	0.734439	27
8. 화학제품	0.959149	14	1.016681	10
9. 비금속광물제품	1.202013	3	1.045992	9
10. 제1차 금속	0.899830	26	0.833484	17
11. 금속제품	0.925137	23	0.831988	18
12. 일반기계	0.931673	22	0.791266	20
13. 전기 및 전자기기	0.883283	27	0.783645	21
14. 정밀기기	1.044733	5	0.825438	19
15. 수송장비	0.996959	11	0.896379	13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956419	16	0.759315	25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944660	20	1.235678	5
18. 건설	1.023324	9	0.854131	15
19. 도소매	0.946611	19	1.004545	11
20. 운수 및 보관	0.959136	15	0.781672	23
21. 통신 및 방송	1.074798	4	1.182521	8
22. 금융 및 보험	0.977230	12	1.539629	2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48092	18	1.190547	7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32891	21	0.724507	28
25. 교육 및 보건	0.920084	24	0.977346	12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33618	7	0.782676	22
27. 기타	1.438782	1	1.370251	3
28. 관광산업	1.044466	6	2.112656	1

가 가장 높은 기타부문(1.438782)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료품(1.317411), 비금속광물제품(1.202013), 통신 및 방송(1.074798) 부문의 영향력계수도 높게 나타난 반면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 등의 영향력계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9>). 관광산업은 성격상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영향력계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강원도의 경우 '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산업간 파급효과 즉 후방연쇄효과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강원도 관광산업의 감응도계수도 '1'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를 살펴보면 식음료, 차량임대, 문화공연, 오락·유흥 부문에서는 '1'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산업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관광산업 중에서도 타 산업간의 연계효과가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응도계수의 경우도 영향력계수가 높은 식음료, 차량임대 등에서 '1'보다 높은 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최종수요형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1'보다 낮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5-10> 강원도 세부 관광산업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28-1. 숙박	0.943195	25	0.779205	30
28-2. 식음료	1.271920	3	1.413958	6
28-3. 여객운송	0.860948	35	0.867997	19
28-4. 운수보조	0.847903	36	0.863396	20
28-5. 차량임대	1.048556	8	1.140093	9
28-6. 여행업	0.956769	20	0.731182	36
28-7. 문화공연	1.109177	5	0.934966	15
28-8. 운동·경기	0.969903	18	0.733486	34
28-9. 오락·유흥	1.065809	7	0.731845	35
28-10. 소매	0.991574	14	1.048533	11

## 2. 제주도 산업별 승수효과

### 가.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제주도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1.406391로 전산업 평균(1.3219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기타부문이 1.927785로 가장 높으

며 음식료품(1.776008), 비금속광물제품(1.61055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유발승수는 교육 및 보건(0.737643), 운수 및 보관(0.61306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는 0.361473으로 28개 산업 중 15위이며, 제주도 전산업 소득유발승수 평균(0.359745)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고용유발승수는 예상과 달리 제주도 전산업 평균(0.039565)보다 낮은 0.034277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을 통합한 결과로 낮은 고용유발승수가 높은 승수를 상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에서 고용유발승수가 높은 산

<표 5-11> 제주도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341530	9	0.161131	26	0.066538	4
2. 광산품	1.307163	11	0.344514	17	0.009728	26
3. 음식료품	1.776008	2	0.210585	23	0.036119	12
4. 섬유 및 가죽제품	1.194245	22	0.368924	13	0.119062	2
5. 목재 및 종이제품	1.296190	12	0.255626	20	0.019265	20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28417	5	0.520568	6	0.037787	11
7. 석유 및 석탄제품	1.048182	28	0.038763	28	0.008228	28
8. 화학제품	1.227576	21	0.245165	21	0.015087	23
9. 비금속광물제품	1.610555	3	0.378236	11	0.014522	24
10. 제1차 금속	1.155938	26	0.192713	24	0.088198	3
11. 금속제품	1.182864	23	0.442990	8	0.041390	10
12. 일반기계	1.178890	24	0.372097	12	0.026505	15
13. 전기 및 전자기기	1.168641	25	0.186270	25	0.054091	6
14. 정밀기기	1.280998	16	0.362049	14	0.025148	17
15. 수송장비	1.153177	27	0.356886	16	0.051779	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256801	17	0.381483	10	0.150538	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241714	19	0.154902	27	0.009671	27
18. 건설	1.350302	8	0.524755	5	0.018689	21
19. 도소매	1.294441	13	0.390022	9	0.051104	8
20. 운수 및 보관	1.281749	15	0.613063	2	0.045699	9
21. 통신 및 방송	1.438799	4	0.335677	18	0.010583	25
22. 금융 및 보험	1.339423	10	0.527314	4	0.026007	16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293722	14	0.269820	19	0.016243	22
24. 공공행정 및 국방	1.252662	18	0.612006	3	0.023981	18
25. 교육 및 보건	1.229058	20	0.737643	1	0.030020	1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351530	7	0.502626	7	0.055025	5
27. 기타	1.927785	1	0.225555	22	0.022545	19
28. 관광산업	1.406391	6	0.361473	15	0.034277	13
전산업 평균	1.321955	-	0.359745	-	0.039565	-

업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0.150538), 섬유 및 가죽제품(0.119062) 등 일부 제조업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고용유발승수는 제주도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관광산업 중 숙박, 여객운송, 운수보조, 여행업, 운동·경기, 소매 등의 생산유발승수는 관광산업 평균(1.359717) 보다 낮았으나, 식음료, 차량임대, 문화공연, 오락·유흥 등의 생산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유발승수는 여객운송, 운수보조, 차량임대 부문이 낮으며, 여행업, 문화공연, 숙박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유발승수는 28개 산업으로 분류했을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세부 관광산업 중 운수보조(0.198678), 오락·유흥(0.111044), 소매(0.075860) 등에서는 전산업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숙박, 운동·경기, 차량임대, 문화공연, 여행업 등에서는 낮은 고용유발승수를 보여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한 고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12>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28-1. 숙박	1.266305	22	0.473739	10	0.029936	21
28-2. 식음료	1.706735	3	0.393933	13	0.047529	14
28-3. 여객운송	1.143215	36	0.302074	26	0.050354	13
28-4. 운수보조	1.155583	34	0.320583	25	0.198678	1
28-5. 차량임대	1.427130	9	0.231995	31	0.011904	33
28-6. 여행업	1.309458	16	0.518472	7	0.025992	25
28-7. 문화공연	1.478783	5	0.506868	8	0.016253	30
28-8. 운동·경기	1.319787	15	0.383482	15	0.009735	36
28-9. 오락·유흥	1.444631	7	0.465235	11	0.111044	3
28-10. 소매	1.345539	12	0.373352	18	0.075860	5
관광산업 평균	1.359717	-	0.396973	-	0.057728	-
전산업 평균	1.331279	-	0.370223	-	0.045591	-

주: <표 5-6> 주 참조

#### 나.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제주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818518로 28개 산업 중 15위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0.967375), 금융 및 보험(0.957772), 광산품(0.952994) 등의 부가가치유발승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제조업 산업은 부가가치유

발승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접세유발승수의 경우 석유 및 석탄제품(0.233693), 음식료품(0.145595),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0.096639)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경우 0.073496으로 전산업 평균(0.055318) 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 세수 증대에 높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는 0.181482로 전산업 평균(0.217930)보다 낮아 관광산업의 외부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의 외부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0.624922), 전기 및 전자기기(0.492376), 제1차 금속(0.447953)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5-13> 제주도 산업별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938560	6	0.035257	18	0.061440	23
2. 광산품	0.952994	3	0.020752	24	0.047006	26
3. 음식료품	0.827480	14	0.145595	2	0.172520	15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1649	21	0.026406	19	0.318351	8
5. 목재 및 종이제품	0.594022	25	0.022350	21	0.405978	4
6. 인쇄, 출판 및 복제	0.856433	12	0.035823	17	0.143567	17
7. 석유 및 석탄제품	0.375078	28	0.233693	1	0.624922	1
8. 화학제품	0.602667	24	0.021263	23	0.397333	5
9. 비금속광물제품	0.844418	13	0.022565	20	0.155582	16
10. 제1차 금속	0.552047	26	0.010954	27	0.447953	3
11. 금속제품	0.796769	16	0.018661	25	0.203231	13
12. 일반기계	0.739733	17	0.061994	10	0.260267	12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07624	27	0.021964	22	0.492376	2
14. 정밀기기	0.654113	22	0.053384	11	0.345887	7
15. 수송장비	0.707813	19	0.095013	4	0.292187	1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32084	18	0.040490	16	0.267916	1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94480	20	0.044119	14	0.305520	9
18. 건설	0.915930	8	0.072934	8	0.084070	21
19. 도소매	0.901201	11	0.043482	15	0.098799	18
20. 운수 및 보관	0.950587	4	0.047094	13	0.049413	25
21. 통신 및 방송	0.904366	10	0.074398	6	0.095634	19
22. 금융 및 보험	0.957772	2	0.085225	5	0.042228	27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67375	1	0.096639	3	0.032625	28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12462	9	0.009935	28	0.087538	20
25. 교육 및 보건	0.941265	5	0.013373	26	0.058735	2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933826	7	0.072932	9	0.066174	22
27. 기타	0.636690	23	0.049103	12	0.363310	6
28. 관광산업	0.818518	15	0.073496	7	0.181482	14
전산업 평균	0.782070	-	0.055318	-	0.217930	-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을 분석한 결과 여객운송(0.513467)과 식음료(0.859573)를 제외한 숙박, 운수보조, 차량임대, 여행업, 소매 등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순간접세유발승수는 운동·경기(0.359477), 식음료(0.113262) 등의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여객운송, 운수보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입유발승수의 경우 여객운송(0.486533) 부문은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타 산업은 제주도 내부에서 조달하는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표 5-14>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28-1. 숙박	0.957741	6	0.048653	16	0.042259	32
28-2. 식음료	0.859573	20	0.113262	4	0.140427	18
28-3. 여객운송	0.513467	35	0.021286	30	0.486533	3
28-4. 운수보조	0.978646	1	0.013844	34	0.021354	37
28-5. 차량임대	0.963308	3	0.028554	24	0.036692	35
28-6. 여행업	0.954844	8	0.025922	26	0.045156	30
28-7. 문화공연	0.896551	19	0.029766	23	0.103449	19
28-8. 운동·경기	0.943328	11	0.359477	1	0.056672	27
28-9. 오락·유희	0.938305	13	0.065457	12	0.061695	25
28-10. 소매	0.950715	9	0.075197	8	0.049285	29
관광산업 평균	0.895648	-	0.078142	-	0.104352	-
전산업 평균	0.813700	-	0.061123	-	0.186300	-

주: <표 5-6> 주 참조

#### 다.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제주도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나 전략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상한바와 같이 제주도의 비금속광물 등 일부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1'보다 낮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계수가 높은 산업은 기타산업(1.458283), 음식료품(1.343470), 비금속광물제품(1.218313), 통신 및 방송(1.0883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응도계수는 관광산업(2.175653), 금융 및 보험(1.579002), 기타산업(1.412022)의 순으로 나타

났다.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산업임을 고려할 때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5-15> 제주도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014807	9	1.306300	4
2. 광산품	0.988810	11	0.876310	14
3. 음식료품	1.343470	2	1.219302	6
4. 섬유 및 가죽제품	0.903393	22	0.759819	22
5. 목재 및 종이제품	0.980510	12	0.947860	12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80533	5	0.841341	15
7. 석유 및 석탄제품	0.792903	28	0.756746	27
8. 화학제품	0.928606	21	0.830854	16
9. 비금속광물제품	1.218313	3	1.083301	9
10. 제1차 금속	0.874415	26	0.760896	21
11. 금속제품	0.894784	23	0.787753	19
12. 일반기계	0.891777	24	0.762411	20
13. 전기 및 전자기기	0.884024	25	0.758255	24
14. 정밀기기	0.969018	16	0.757322	26
15. 수송장비	0.872326	27	0.757678	25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950713	17	0.759772	23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939301	19	1.108097	8
18. 건설	1.021443	8	0.885829	13
19. 도소매	0.979187	13	1.075506	10
20. 운수 및 보관	0.969585	15	0.813532	18
21. 통신 및 방송	1.088387	4	1.162519	7
22. 금융 및 보험	1.013214	10	1.579002	2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78643	14	1.250289	5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47583	18	0.756455	28
25. 교육 및 보건	0.929727	20	0.999628	1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22372	7	0.815549	17
27. 기타	1.458283	1	1.412022	3
28. 관광산업	1.063872	6	2.175653	1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식음료(1.282027), 문화공연(1.110799), 오락·유흥(1.085146), 차량임대(1.071999), 소매(1.010712) 등의 산업에서 '1'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감응도계수는 식음료(1.462065), 차량임대(1.180604), 소매(1.079978) 부문이 '1'보다 크고 대부분은 낮은 수준의 감응도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6>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28-1 숙박	0.951195	22	0.810979	23
28-2. 식음료	1.282027	3	1.462065	6
28-3. 여객운송	0.858734	36	0.948935	15
28-4. 운수보조	0.868025	34	0.755377	31
28-5. 차량임대	1.071999	9	1.180604	9
28-6. 여행업	0.983609	16	0.777245	25
28-7. 문화공연	1.110799	5	0.942995	16
28-8. 운동·경기	0.991368	15	0.764220	26
28-9. 오락·유흥	1.085146	7	0.762400	27
28-10. 소매	1.010712	12	1.079978	12

### 3. 강원도와 제주도 승수효과 비교 분석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강원도와 제주도의 10개 세부 관광산업 승수효과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강원도 및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 평균은 전국 관광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국단위의 산업연관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10개 세부 관광산업 모두에 있어서 강원도 생산유발승수가 제주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가 내륙에 위치하여 타 지역간의 연계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와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의 소득유발승수는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강원도와 제주도는 관광산업으로 인한 소득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소득유발승수를 지역간 비교해 보면 차량임대를 제외한 9개 부문에서 제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lt;표 5-17&gt; 강원도와 제주도 생산·소득유발승수 비교

구 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전국	강원도	제주도	전국	강원도	제주도
28-1. 숙박	1.569644	1.308386	1.266305	0.422209	0.465655	0.473739
28-2. 식음료	2.018380	1.764389	1.706735	0.360286	0.386617	0.393933
28-3. 여객운송	1.465506	1.194294	1.143215	0.271619	0.300440	0.302074
28-4. 운수보조	1.286126	1.176199	1.155583	0.311675	0.320116	0.320583
28-5. 차량임대	1.676418	1.454541	1.427130	0.233572	0.233490	0.231995
28-6. 여행업	1.575402	1.327215	1.309458	0.471912	0.516388	0.518472
28-7. 문화공연	1.814506	1.538634	1.478783	0.454884	0.500170	0.506868
28-8. 운동·경기	1.631582	1.345435	1.319787	0.357188	0.380750	0.383482
28-9. 오락·유흥	1.752862	1.478475	1.444631	0.425305	0.461924	0.465235
28-10. 소매	1.612312	1.375497	1.345539	0.351674	0.370970	0.373352
관광산업 평균	1.640274	1.396307	1.359717	0.366032	0.393652	0.396973
전산업 평균	1.802113	1.387185	1.331279	0.335832	0.366451	0.370223

주: <표 5-6> 주 참조

강원도 관광산업의 고용유발승수는 강원도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고용유발승수 보다도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고용유발승수도 전국 관광산업의 고용유발승수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고용유발승수가 강원도 보다 약간 높았으며, 두 지역 모두 전국 37개 산업의 평균 및 강원도와 제주도 전산업 평균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와 제주도에 있어서 관광산업은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승수는 강원도와 제주도 모두에서 37개 산업 평균과 전국 세부 관광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 강원도 전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 평균은 0.811871이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894241이며, 제주도의 전산업 평균은 0.813700이나 관광산업은 0.895648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강원도와 제주도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부가가치유발승수는 제주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lt;표 5-18&gt; 강원도와 제주도 고용·부가가치유발승수 비교

구 분	고용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전국	강원도	제주도	전국	강원도	제주도
28-1. 숙박	0.038346	0.039122	0.029936	0.904513	0.950305	0.957741
28-2. 식음료	0.051204	0.050195	0.047529	0.833631	0.856031	0.859573
28-3. 여객운송	0.019104	0.035123	0.050354	0.530759	0.528900	0.513467
28-4. 운수보조	0.006880	0.010156	0.198678	0.955640	0.976340	0.978646
28-5. 차량임대	0.011601	0.012436	0.011904	0.934993	0.960990	0.963308
28-6. 여행업	0.015992	0.042803	0.025992	0.933803	0.955703	0.954844
28-7. 문화공연	0.018390	0.023523	0.016253	0.866878	0.892026	0.896551
28-8. 운동·경기	0.027600	0.036239	0.009735	0.918197	0.939063	0.943328
28-9. 오락·유흥	0.046134	0.064806	0.111044	0.918844	0.935088	0.938305
28-10. 소매	0.055992	0.049753	0.075860	0.927839	0.947964	0.950715
관광산업 평균	0.029124	0.036416	0.057728	0.872510	0.894241	0.895648
전산업 평균	0.022995	0.027655	0.045591	0.788961	0.811871	0.813700

주: &lt;표 5-6&gt; 주 참조

순간접세유발승수는 강원도의 경우 전국 세부 관광산업 평균보다 낮은 0.077795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0.078142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식음료 및 운동·경기 부문의 순간접세유발승수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의 평균 순간접세유발승수는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19&gt; 강원도와 제주도 순간접세·수입유발승수 비교

구 분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전국	강원도	제주도	전국	강원도	제주도
28-1. 숙박	0.059978	0.048701	0.048653	0.095487	0.049695	0.042259
28-2. 식음료	0.111642	0.112463	0.113262	0.166369	0.143969	0.140427
28-3. 여객운송	0.050805	0.022349	0.021286	0.469241	0.471100	0.486533
28-4. 운수보조	0.021552	0.014431	0.013844	0.044360	0.023660	0.021354
28-5. 차량임대	0.040423	0.029155	0.028554	0.065007	0.039010	0.036692
28-6. 여행업	0.039485	0.026257	0.025922	0.066197	0.044297	0.045156
28-7. 문화공연	0.042278	0.030492	0.029766	0.133122	0.107974	0.103449
28-8. 운동·경기	0.306985	0.353977	0.359477	0.081803	0.060937	0.056672
28-9. 오락·유흥	0.071260	0.065268	0.065457	0.081156	0.064912	0.061695
28-10. 소매	0.079652	0.074859	0.075197	0.072161	0.052036	0.049285
관광산업 평균	0.082406	0.077795	0.078142	0.127490	0.105759	0.104352
전산업 평균	0.067993	0.060890	0.061123	0.211039	0.188129	0.186300

주: &lt;표 5-6&gt; 주 참조

강원도와 제주도 세부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는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산업의 외부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관광산업의 지역외부 누출효과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객운송의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높은 수입유발승수를 보여 지역외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세부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를 분석한 결과 식음료 및 문화공연 부문이 전국, 강원도, 제주도 모두에서 '1' 보다 크게 나타나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식음료, 차량임대, 문화공연, 오락·유흥 부문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식음료, 차량임대, 문화공연, 오락·유흥, 소매 부문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지역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감응도계수의 경우 전국, 강원도, 제주도에서 식음료 부문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강원도와 제주도 모두에서는 식음료, 차량임대, 소매부문이 '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감응도계수가 '1'보다 낮아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강원도와 제주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비교**

구 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전국	강원도	제주도	전국	강원도	제주도
28-1. 숙박	0.871002	0.943195	0.951195	0.604553	0.779205	0.810979
28-2. 식음료	1.120007	1.271920	1.282027	1.144924	1.413958	1.462065
28-3. 여객운송	0.813215	0.860948	0.858734	0.737171	0.867997	0.948935
28-4. 운수보조	0.713677	0.847903	0.868025	0.640898	0.863396	0.755377
28-5. 차량임대	0.930251	1.048556	1.071999	0.918932	1.140093	1.180604
28-6. 여행업	0.874197	0.956769	0.983609	0.575705	0.731182	0.777245
28-7. 문화공연	1.006877	1.109177	1.110799	0.706291	0.934966	0.942995
28-8. 운동·경기	0.905372	0.969903	0.991368	0.564951	0.733486	0.764220
28-9. 오락·유흥	0.972670	1.065809	1.085146	0.564235	0.731845	0.762400
28-10. 소매	0.894679	0.991574	1.010712	0.860127	1.048533	1.079978

## 제4절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1. 연구대상지역 관광객 지출액 추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 기준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객의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강원도 관광객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관광객 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2000년 기준 강원도 관광객의 지출액은 1,790,710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00년 기준 강원도 지역산업연관모형에 1,790,710백만원을 관광산업 최종수요 부문으로 적용하면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지출액은 내국인 1,087,670백만원, 외국인 409,867백만원 등 총 1,497,537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관광산업의 최종수요 부문에 도입하면 제주도 경제에 대한 관광객 지출액의 직·간접 기여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표 5-21>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내국인 지출액	외국인 지출액
강원도	1,790,710	1,608,211	182,499
제주도	1,497,537	1,087,670	409,867

주: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은 한국은행(2001)의 강원도 관광객 1인당 1일 평균 지출액(내국인: 33,222원, 외국인: 269,570원)에 관광객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은행(2001), 『강원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2001), 제주 통계연보.

### 2.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가.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강원도 관광객의 지출액에 의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2,581,513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총 생산유발효과 중 관광산업에 발생한 직접생산유발효과는 1,927,243백만원

(74.7%)이며, 타 산업에 발생한 간접생산유발효과는 654,270백만원(25.3%)으로 나타났다. 간접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난 산업은 농림수산물 93,981백만원(3.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74,590백만원(2.9%), 금융 및 보험 64,334백만원(2.5%) 등으로 관광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총소득유발효과는 642,642백만원이며 이중 직접소득

<표 5-22>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의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율		비율		비율
1. 농림수산물	93,981	3.6	9,426	1.5	5,471	6.7
2. 광산물	950	0.0	247	0.0	7	0.0
3. 음식료품	173,989	6.7	16,224	2.5	925	1.1
4. 섬유 및 가죽제품	673	0.0	203	0.0	16	0.0
5. 목재 및 종이제품	3,187	0.1	583	0.1	58	0.1
6. 인쇄, 출판 및 복제	3,108	0.1	1,316	0.2	92	0.1
7. 석유 및 석탄제품	1,295	0.1	34	0.0	7	0.0
8. 화학제품	7,410	0.3	1,254	0.2	48	0.1
9. 비금속광물제품	4,530	0.2	973	0.2	15	0.0
10. 제1차 금속	327	0.0	46	0.0	1	0.0
11. 금속제품	2,196	0.1	800	0.1	33	0.0
12. 일반기계	1,050	0.0	305	0.0	10	0.0
13. 전기 및 전자기기	1,265	0.0	161	0.0	11	0.0
14. 정밀기기	1,516	0.1	341	0.1	3	0.0
15. 수송장비	8,604	0.3	2,175	0.3	34	0.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3,414	0.1	1,026	0.2	76	0.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43,090	1.7	3,782	0.6	199	0.2
18. 건설	10,323	0.4	4,233	0.7	97	0.1
19. 도소매	15,999	0.6	5,091	0.8	856	1.0
20. 운수 및 보관	4,684	0.2	2,431	0.4	239	0.3
21. 통신 및 방송	60,008	2.3	13,902	2.2	306	0.4
22. 금융 및 보험	64,334	2.5	27,240	4.2	1,186	1.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74,590	2.9	13,305	2.1	1,059	1.3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3,549	0.5	8,935	1.4	304	0.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5,965	0.2	2,407	0.4	312	0.4
27. 기타	54,233	2.1	-	0.0	-	0.0
28. 관광산업	1,927,243	74.7	526,204	81.9	70,491	86.1
총효과(1+2)	2,581,513	100.0	642,642	100.0	81,855	100.0
직접효과(1)	1,927,243	74.7	526,204	81.9	70,491	86.1
간접효과(2)	654,270	25.3	116,439	18.1	11,364	13.9



유발효과는 526,204백만원으로 총 소득유발효과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 소득유발효과는 116,439백만원(18.1%)이며, 금융 및 보험 27,240백만원(4.2%), 음식료품 16,224백만원(2.5%), 통신 및 방송 13,902백만원(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에 의해 창출되는 총 고용유발효과는 81,855명으로 강원도 전체 고용자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8)</sup>. 총 고용창출 인원 중 관광산업에 전체의 86.1%에 해당하는 70,491명이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타 산업에서는 13.9%에 해당하는 11,3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간접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 5,471명(6.7%), 금융 및 보험 1,186명(1.4%),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059명(1.3%) 등으로 분석되었다.

#### 나.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효과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61,728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총 부가가치유발효과 중에서 관광산업에 발생하는 직접유발효과는 전체의 75.8%에 해당하는 1,108,5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교지표가 될 수 있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기준으로 한 관광객 지출액의 강원도 지역경제 기여도는 약 11.3% 수준으로 추정된다<sup>9)</sup>. 관광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4.2%에 해당하는 353,140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수산물 68,582백만원(4.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57,946백만원(4.0%), 음식료품 56,615백만원(3.9%) 등의 순으로 간접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순간접세의 총 유발효과는 131,896백만원이며, 전체의 70.8%에 해당하는 93,405백만원이 직접유발효과이며, 타 산업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순간접세유발효과는 38,491백만원으로 전체의 2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간접적인 순간접세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식료품 19,272백만원(14.6%)이며,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6,060백만원(4.6%), 금융 및 보험 4,280백만원(3.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강원도 관광객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에 소요되는 중간재의 수입(import)유발액, 즉 지역외부로 누출을

8) 강원도 전체 고용자수는 통계청(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407,515명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9) 통계청(2002a),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의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12,883,500백만원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하는 총 수입유발효과는 328,972백만원이며 이중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직접수입유발효과는 265,991백만원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객 지출액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유발효과는 19.1%인 62,981백만원으로 음식료품 20,050백만원(6.1%), 기타부문 12,538백만원(3.8%), 전력 가스 및 수도 11,103백만원(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강원도 관광객 지출액의 부가가치·순간접세·수입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유발효과		순간접세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비율		비율		비율
1. 농림수산물	68,582	4.7	1,306	1.0	2,772	0.8
2. 광산품	716	0.0	6	0.0	9	0.0
3. 음식료품	56,615	3.9	19,272	14.6	20,050	6.1
4. 섬유 및 가죽제품	361	0.0	12	0.0	185	0.1
5. 목재 및 종이제품	1,351	0.1	39	0.0	1,112	0.3
6. 인쇄, 출판 및 복제	1,965	0.1	63	0.0	246	0.1
7. 석유 및 석탄제품	446	0.0	298	0.2	797	0.2
8. 화학제품	3,178	0.2	84	0.1	2,500	0.8
9. 비금속광물제품	2,094	0.1	29	0.0	428	0.1
10. 제1차 금속	139	0.0	2	0.0	130	0.0
11. 금속제품	1,399	0.1	24	0.0	362	0.1
12. 일반기계	602	0.0	52	0.0	230	0.1
13. 전기 및 전자기기	487	0.0	19	0.0	577	0.2
14. 정밀기기	614	0.0	57	0.0	419	0.1
15. 수송장비	4,302	0.3	625	0.5	1,945	0.6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886	0.1	100	0.1	752	0.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2,306	1.5	1,387	1.1	11,103	3.4
18. 건설	6,929	0.5	598	0.5	486	0.1
19. 도소매	11,593	0.8	469	0.4	1,114	0.3
20. 운수 및 보관	3,551	0.2	151	0.1	84	0.0
21. 통신 및 방송	38,421	2.6	3,176	2.4	2,843	0.9
22. 금융 및 보험	47,657	3.3	4,280	3.2	1,124	0.3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57,946	4.0	6,060	4.6	649	0.2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0,698	0.7	61	0.0	396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4,170	0.3	322	0.2	128	0.0
27. 기타	5,135	0.4	-	0.0	12,538	3.8
28. 관광산업	1,108,588	75.8	93,405	70.8	265,991	80.9
총효과(1+2)	1,461,728	100.0	131,896	100.0	328,972	100.0
직접효과(1)	1,108,588	75.8	93,405	70.8	265,991	80.9
간접효과(2)	353,140	24.2	38,491	29.2	62,981	19.1

### 3.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가.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제주도의 2000년 관광객 지출액(1,497,537백만원)으로 발생하는 총 생산유발효과는

<표 5-24>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율		비율		비율
1. 농림수산물	74,879	3.6	7,721	1.4	4,359	8.5
2. 광산물	687	0.0	184	0.0	3	0.0
3. 음식료품	135,535	6.4	13,043	2.4	865	1.7
4. 섬유 및 가죽제품	52	0.0	17	0.0	6	0.0
5. 목재 및 종이제품	3,098	0.1	574	0.1	43	0.1
6. 인쇄, 출판 및 복제	4,271	0.2	1,773	0.3	126	0.2
7. 석유 및 석탄제품	31	0.0	1	0.0	0	0.0
8. 화학제품	1,444	0.1	266	0.0	16	0.0
9. 비금속광물제품	3,506	0.2	785	0.1	24	0.0
10. 제1차 금속	5	0.0	1	0.0	0	0.0
11. 금속제품	483	0.0	191	0.0	18	0.0
12. 일반기계	68	0.0	22	0.0	2	0.0
13. 전기 및 전자기기	30	0.0	4	0.0	1	0.0
14. 정밀기기	10	0.0	3	0.0	0	0.0
15. 수송장비	49	0.0	15	0.0	2	0.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264	0.0	84	0.0	38	0.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4,306	1.2	2,246	0.4	157	0.3
18. 건설	8,341	0.4	3,617	0.7	108	0.2
19. 도소매	14,780	0.7	4,725	0.9	680	1.3
20. 운수 및 보관	3,813	0.2	2,045	0.4	151	0.3
21. 통신 및 방송	42,945	2.0	10,276	1.9	222	0.4
22. 금융 및 보험	52,667	2.5	22,383	4.1	1,066	2.1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64,407	3.1	11,568	2.1	754	1.5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10,766	0.5	7,325	1.4	279	0.5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4,928	0.2	2,124	0.4	246	0.5
27. 기타	44,439	2.1	-	0.0	-	0.0
28. 관광산업	1,610,317	76.5	450,327	83.2	42,163	82.1
총효과(1+2)	2,106,122	100.0	541,319	100.0	51,331	100.0
직접효과(1)	1,610,317	76.5	450,327	83.2	42,163	82.1
간접효과(2)	495,805	23.5	90,992	16.8	9,167	17.9

2,106,122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총 생산유발효과 중 관광산업 자체에 대한 직접유발효과는 1,610,317백만원(76.5%)으로 나타났다(<표 5-24>).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해 제주도의 타 산업에서 발생한 간접생산유발효과는 전체의 23.5%인 495,80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간접생산유발효과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 135,535백만원(6.4%), 농림수산물 74,879백만원(3.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64,407백만원(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은 제주도 경제 전체에 총 541,319백만원의 소득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관광산업에 전체의 83.2%인 450,327백만원의 직접소득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관광산업을 제외한 제주도 산업에 90,992백만원의 간접소득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소득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금융 및 보험 22,383백만원(4.1%), 음식료품 13,043백만원(2.4%),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1,568백만원(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해 창출되는 총 고용유발효과는 51,331명으로 제주도 전체 고용자수의 3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총 고용창출 인원 중 관광산업에서 전체의 82.1%에 해당하는 42,163명이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광산업 이외의 타 산업에서 9,167명의 간접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고용유발효과는 농림수산물 4,359명(8.5%), 금융 및 보험 1,066명(2.1%), 음식료품 865명(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나. 부가가치 · 순간접세 · 수입유발효과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225,761백만원이며, 직접유발효과는 948,734백만원(77.4%)이고 간접유발효과는 277,027백만원(22.6%)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는 약 25.5%로 분석되어 강원도의 지역경제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1)</sup>.

제주도의 간접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물 56,182백만원

10) 제주도 전체 고용자수는 통계청(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154,391명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통계청(2002a),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의 제주도 지역내총생산 4,809,500백만원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50,381백만원(4.1%), 음식료품 45,514백만원(3.7%), 금융 및 보험 39,159백만원(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해 제주도에 발생하는 순간접세유발효과는 총 110,063백만원으로 직접유발효과 79,936백만원(72.6%), 간접유발효과 30,127백만원(27.4%)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중에서 순간접세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은 음식료

<표 5-25>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의 부가가치 · 순간접세 · 수입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유발효과		순간접세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농림수산물	56,182	4.6	1,070	1.0	2,271	0.8
2. 광산품	533	0.0	4	0.0	7	0.0
3. 음식료품	45,514	3.7	15,493	14.1	16,119	5.9
4. 섬유 및 가죽제품	30	0.0	1	0.0	15	0.0
5. 목재 및 종이제품	1,329	0.1	38	0.0	1,094	0.4
6. 인쇄, 출판 및 복제	2,647	0.2	86	0.1	332	0.1
7. 석유 및 석탄제품	11	0.0	7	0.0	19	0.0
8. 화학제품	674	0.1	18	0.0	530	0.2
9. 비금속광물제품	1,690	0.1	24	0.0	345	0.1
10. 제1차 금속	2	0.0	0	0.0	2	0.0
11. 금속제품	334	0.0	6	0.0	87	0.0
12. 일반기계	43	0.0	4	0.0	16	0.0
13. 전기 및 전자기기	12	0.0	0	0.0	14	0.0
14. 정밀기기	5	0.0	0	0.0	3	0.0
15. 수송장비	30	0.0	4	0.0	14	0.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54	0.0	8	0.0	62	0.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3,245	1.1	824	0.7	6,593	2.4
18. 건설	5,920	0.5	511	0.5	416	0.2
19. 도소매	10,760	0.9	435	0.4	1,034	0.4
20. 운수 및 보관	2,987	0.2	127	0.1	71	0.0
21. 통신 및 방송	28,400	2.3	2,347	2.1	2,101	0.8
22. 금융 및 보험	39,159	3.2	3,517	3.2	924	0.3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50,381	4.1	5,269	4.8	564	0.2
24. 공공행정 및 국방	-	0.0	-	0.0	-	0.0
25. 교육 및 보건	8,770	0.7	50	0.0	325	0.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681	0.3	284	0.3	113	0.0
27. 기타	4,533	0.4	-	0.0	11,069	4.1
28. 관광산업	948,734	77.4	79,936	72.6	227,637	83.8
총효과(1+2)	1,225,761	100.0	110,063	100.0	271,776	100.0
직접효과(1)	948,734	77.4	79,936	72.6	227,637	83.8
간접효과(2)	277,027	22.6	30,127	27.4	44,140	16.2

품 15,493백만원(14.1%),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5,269백만원(4.8%), 금융 및 보험 3,517백만원(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광객 지출액 중에서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중간재의 수입유발액, 즉 제주도 외부로 누출되는 부문을 의미하는 수입유발효과는 총 271,776백만원 수준이다. 이중 관광산업의 직접수입유발효과는 227,637백만원(83.8%)이고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간접수입유발효과는 44,140백만원(16.2%)으로 분석되었다.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간접수입유발효과는 음식료품 16,119백만원(5.9%), 기타부문 11,069백만원(4.1%), 전력 가스 및 수도 6,593백만원(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음식료품 및 농림수산물,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등에 미치는 간접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5절 시사점

입지상계수 분석을 통한 주요 특화 산업의 육성 방안과 승수효과 비교 분석에 기초하여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산업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정도를 의미하는 입지상계수 분석 결과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인 농림수산물과 세부 관광산업에서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산업의 입지상계수도 대부분 '1'보다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강원도는 광산업,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부문의 특화정도가 높으며, 제주도는 농림수산물, 건설 부문의 특화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산업 특화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된 타 산업부문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의 전통적인 기반 산업인 농림수산물의 특화정도가 높은 것을 고려 할 때 농업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0개 세부 관광산업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각종 유발승수가 지역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 또한 관광산업 대부분의 유발승수가 전산업 평

군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기준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의 11.3%, 제주도의 경우 25.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강원도 전산업 총 취업자의 20.1%, 제주도 전산업 총 취업자의 33.2% 수준으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으로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 산업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화정도가 낮거나 외부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제6장 지역 전략산업 종합분석

연구대상지역의 전략산업 선정기준으로 종합지수를 설정하였다. 종합지수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전략산업 선정 절차는 우선 제5장에서 도출된 각종 유발승수 등을 활용하여 효율성지수를 도출한 후 산업구조지수와 종합 검토하여 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각 산업의 종합지수의 순위를 기본적인 전략산업 선정의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지상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전략산업 선정의 보완요인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강원도와 제주도의 전략산업을 선정한다.

전략산업 선정기준의 계산식에 의해 도출되는 효율성지수,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는 순위에 대한 평균값이므로 낮은 값을 갖는 산업이 지역의 전략산업으로서 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지수가 낮을수록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1절 강원도 전략산업 분석

#### 1. 종합지수에 의한 전략산업 선정

강원도 지역산업연관표의 각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순간접세유발승수의 순위를 평균한 효율성지수와 산업별 생산액 및 취업자수의 구성비율 순위, 입지상계수 순위를 평균한 산업구조지수를 도출한 후 두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도의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우선 효율성지수를 도출한 결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의 값이 6.00으로 가장 낮아 1위로 분석이 되었다.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에 이어 금융 및 보험(8.00), 인쇄 출판 및 복제·운수 및 보관·관광산업(8.50)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3차 산업인 서비스관련 산업의 효율성지수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지수 순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산업구조지수를 분석한 결과 관광산업은 3.67로 28개 산업



중에서 1위로 나타나 강원도의 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교육 및 보건(5.00), 건설(5.67), 도소매(6.00), 음식료품(6.33)의 순으로 산업구조지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의 산업구조지수 역시 3차 산업인 서비스관련 산업은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낸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 부문은 대부분 낮은 순위를 보여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각 산업의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한 결과 관광산업이 2.0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1위로 분석되었다.

<표 6-1> 강원도 종합지수

구분	효율성지수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3.50	11	10.67	12	11.50	10
2. 광산물	17.25	21	8.67	9	15.00	16
3. 음식료품	12.50	8	6.33	5	6.50	6
4. 섬유 및 가죽제품	14.75	15	22.67	23	19.00	20
5. 목재 및 종이제품	16.75	20	24.67	26	23.00	25
6. 인쇄, 출판 및 복제	8.50	3	24.00	25	14.00	15
7. 석유 및 석탄제품	19.00	24	28.00	28	26.00	27
8. 화학제품	18.75	23	17.33	19	21.00	23
9. 비금속광물제품	17.25	21	6.67	6	13.50	13
10. 제1차 금속	25.00	28	25.00	27	27.50	28
11. 금속제품	16.50	19	20.33	20	19.50	21
12. 일반기계	14.50	14	22.67	23	18.50	19
13. 전기 및 전자기기	21.25	26	20.33	20	23.00	25
14. 정밀기기	14.75	15	16.33	17	16.00	17
15. 수송장비	13.50	11	16.00	16	13.50	13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2.75	10	20.67	22	16.00	17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0.50	25	14.33	14	19.50	21
18. 건설	9.25	6	5.67	3	4.50	2
19. 도소매	11.00	7	6.00	4	5.50	4
20. 운수 및 보관	8.50	3	14.67	15	9.00	8
21. 통신 및 방송	12.50	8	10.33	10	9.00	8
22. 금융 및 보험	8.00	2	10.33	10	6.00	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3.75	13	13.33	13	13.00	12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50	18	7.33	7	12.50	11
25. 교육 및 보건	14.75	15	5.00	2	8.50	7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6.00	1	8.33	8	4.50	2
27. 기타	21.25	26	16.67	18	22.00	24
28. 관광산업	8.50	3	3.67	1	2.00	1

주: 각 지수 값이 동일한 산업(예: 효율성지수의 광산물과 비금속광물제품)은 동일한 순위를 부여함

건설·사회 및 기타 서비스(4.50), 도소매(5.50), 금융 및 보험(6.00) 등도 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 모두 서비스산업의 순위가 높고 제조업 분야의 순위가 낮게 나타난 결과 종합지수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2. 최종 전략산업 선정

종합지수는 각 선정 기준에 동일한 중요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 반영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표 6-2> 강원도 전략산업 선정

산업	종합지수 순위	입지상계수	영향력계수	전략산업순위
28. 관광산업	1	2.256708	1.044466	1
18. 건설	2	2.448331	1.023324	2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	1.311871	1.033618	2
19. 도소매	4	0.871505	0.946611	
22. 금융 및 보험	5	1.103595	0.977230	
3. 음식료품	6	2.511117	1.317411	4
25. 교육 및 보건	7	1.717316	0.920084	
20. 운수 및 보관	8	0.470759	0.959136	
21. 통신 및 방송	8	1.518006	1.074798	5
1. 농림수산물	10	2.536829	1.000635	6
24. 공공행정 및 국방	11	2.491647	0.932891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2	0.408321	0.948092	
9. 비금속광물제품	13	5.772225	1.202013	7
15. 수송장비	13	0.421270	0.996959	
6. 인쇄, 출판 및 복제	15	0.259930	1.025795	
2. 광산품	16	15.491720	0.974996	
14. 정밀기기	17	2.685574	1.044733	8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7	0.454240	0.956419	
12. 일반기계	19	0.201535	0.931673	
4. 섬유 및 가죽제품	20	0.111907	0.919375	
11. 금속제품	21	0.346756	0.925137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1	1.294866	0.944660	
8. 화학제품	23	0.254562	0.959149	
27. 기타	24	1.486661	1.438782	9
5. 목재 및 종이제품	25	0.246611	0.952514	
13. 전기 및 전자기기	25	0.117585	0.883283	
7. 섬유 및 석탄제품	27	0.013329	0.766387	
10. 제1차 금속	28	0.129474	0.899830	

주: '건설'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는 종합지수 순위가 동일하여 전략산업 순위도 동일하게 부여함

하기 위하여 각 산업의 입지상계수를 전략산업 선정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전략산업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영향력계수도 함께 검토하였다. 종합지수의 순위가 높은 산업 순으로 입지상계수와 영향력계수를 검토하여 두 계수의 값이 '1'보다 큰 산업만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종합지수, 입지상계수, 영향력계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산업이 강원도 제1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기타부문 등이 강원도 전략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제2절 제주도 전략산업 분석

### 1. 종합지수에 의한 전략산업 선정

제주도도 강원도와 동일하게 효율성지수와 산업구조지수를 이용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 효율성지수의 도출 결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6.25), 금융 및 보험(9.00), 건설(9.25), 인쇄 출판 및 복제(9.75), 운수 및 보관(10.00)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관광산업(10.50)은 6위로 나타나 효율성지수 순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전반적으로 서비스관련 산업의 효율성지수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산업구조지수 분석 결과 관광산업이 1.67로 전산업 중에서 1위로 나타나 제주도 산업 중에서 우수한 산업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림수산물(4.00), 도소매·교육 및 보건(4.33), 건설(5.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은 농림수산물의 산업구조지수 순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감귤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농림수산물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구조지수 순위 역시 서비스관련 산업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 부문은 낮게 나타나 제주도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지수 도출 결과 관광산업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3.50) 부문이 1위로 나타났으며, 건설(4.00), 금융 및 보험(5.00), 도소매(5.50) 등의 순으로 종합지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lt;표 6-3&gt; 제주도 종합지수

구분	효율성지수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1. 농림수산물	14.00	12	4.00	2	7.00	6
2. 광산품	19.25	24	15.33	16	20.00	21
3. 음식료품	13.50	11	10.00	9	10.00	9
4. 섬유 및 가죽제품	12.50	9	22.33	22	15.50	16
5. 목재 및 종이제품	17.50	21	17.67	18	19.50	20
6. 인쇄, 출판 및 복제	9.75	4	16.33	17	10.50	10
7. 석유 및 석탄제품	19.50	25	28.00	28	26.50	28
8. 화학제품	20.50	27	18.33	19	23.00	25
9. 비금속광물제품	16.75	20	11.00	10	15.00	15
10. 제1차 금속	19.00	23	25.00	25	24.00	27
11. 금속제품	15.75	18	18.33	19	18.50	19
12. 일반기계	14.25	14	22.33	22	18.00	17
13. 전기 및 전자기기	17.75	22	23.33	24	23.00	25
14. 정밀기기	15.00	16	26.00	26	21.00	23
15. 수송장비	12.50	9	26.33	27	18.00	1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1.00	7	20.67	21	14.00	14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0.25	26	14.67	14	20.00	21
18. 건설	9.25	3	5.33	5	4.00	3
19. 도소매	11.50	8	4.33	3	5.50	5
20. 운수 및 보관	10.00	5	13.00	13	9.00	7
21. 통신 및 방송	14.00	12	11.67	11	11.50	11
22. 금융 및 보험	9.00	2	7.67	8	5.00	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75	15	12.00	12	13.50	13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75	18	5.67	6	12.00	12
25. 교육 및 보건	15.00	16	4.33	3	9.50	8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6.25	1	5.67	6	3.50	1
27. 기타	21.25	28	15.00	15	21.50	24
28. 관광산업	10.50	6	1.67	1	3.50	1

주: 각 지수 값이 동일한 산업(예: 효율성지수의 농림수산물과 통신 및 방송)은 동일한 순위를 부여함

## 2. 최종 전략산업 선정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과정에서 도출한 입지상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광산업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가 제주도 제1의 전략산업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건설, 금융

및 보험,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기타부문 등이 제주도가 육성·발전시켜야 할 전략산업으로 분석되었다.

<표 6-4> 제주도 전략산업 선정

산업	종합지수 순위	입지상계수	영향력계수	전략산업순위
28. 관광산업	1	3.594631	1.063872	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	1.448511	1.022372	1
18. 건설	3	2.052875	1.021443	3
22. 금융 및 보험	4	1.132878	1.013214	4
19. 도소매	5	1.115544	0.979187	
1. 농림수산물	6	6.863953	1.014807	5
20. 운수 및 보관	7	0.471153	0.969585	
25. 교육 및 보건	8	1.490827	0.929727	
3. 음식료품	9	0.941010	1.343470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	0.423298	1.080533	
21. 통신 및 방송	11	0.875471	1.088387	
24. 공공행정 및 국방	12	2.312700	0.947583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3	0.425357	0.978643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4	0.043192	0.950713	
9. 비금속광물제품	15	1.253016	1.218313	6
4. 섬유 및 가죽제품	16	0.011158	0.903393	
12. 일반기계	17	0.018646	0.891777	
15. 수송장비	17	0.003249	0.872326	
11. 금속제품	19	0.103471	0.894784	
5. 목재 및 종이제품	20	0.285995	0.980510	
2. 광산품	21	2.073038	0.98881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1	0.709432	0.939301	
14. 정밀기기	23	0.009181	0.969018	
27. 기타	24	1.017399	1.458283	7
8. 화학제품	25	0.068066	0.928606	
13. 전기 및 전자기기	25	0.003718	0.884024	
10. 제1차 금속	27	0.005636	0.874415	
7. 섬유 및 석탄제품	28	0.000391	0.792903	

주: '관광산업'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는 종합지수 순위가 동일하여 전략산업 순위도 동일하게 부여함

### 제3절 종합 평가

종합지수, 입지상계수, 영향력계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원도와 제주도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강원도는 관광산업,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

스,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기타부문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건설, 금융 및 보험,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기타부문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강원도와 제주도 두 지역에 있어서 관광산업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건설 부문의 전략산업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 강원도 및 제주도 전략산업 비교

강원도 전략산업		제주도 전략산업	
순위	전략산업	순위	전략산업
1	28. 관광산업	1	28. 관광산업
2	18. 건설	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	18. 건설
4	3. 음식료품	4	22. 금융 및 보험
5	21. 통신 및 방송	5	1. 농림수산물
6	1. 농림수산물	6	9. 비금속광물제품
7	9. 비금속광물제품	7	27. 기타
8	14. 정밀기기	-	-
9	27. 기타	-	-

연구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강원도와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강원도와 제주도 지방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농림수산물 등과 연계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상품 및 자원 개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개, 관광사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교육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제1절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승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등을 산업간·지역간 비교·분석하고 각 지역의 관광객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적용하여 각 지역 전략산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현황분석을 토대로 강원도와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강원도 관광정책 제언

특정산업의 전국대비 상대적 특화정도를 의미하는 입지상계수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광산품,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 관광산업 등의 순으로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광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강원도 관광산업은 입지상계수가 2.26으로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을 10개 세부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객운송과 여행업을 제외한 8개 부문에서 전국대비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도출된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승수를 살펴보면 전체 28개 산업 중 생산유발승수 6위, 소득유발승수 15위, 고용유발승수 5위, 부가가치유발승수 15위, 순간접세유발승수 7위, 수입유발승수 14위로 나타났다.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순간접세유발승수는 모두 강원도 전산업 평균 이상이며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도 모두 '1' 이상으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이 강원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입유발승수는 강원도 전산업 평균 이하로 나타나 관광산업의 외부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11.3%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각종 지수 분석결과 관광산업은 효율성지수 3위, 산업구조지수 1위, 종합지수 1위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강원도 전략산업은 관광산업,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강원도의 중심적인 산업으로 향후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광산업이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강원도 관광현황 분석 결과 확인된 강원도 관광객의 계절별·지역별 집중현상을 해소하여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강원도 전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욕구 및 행태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직접 연계되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민박, 관광펜션, 관광식당, 기념품 및 특산물 판매점, 관광농원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산업과 지역의 타 산업을 연계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관광객 지출액으로 인한 간접적인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부문 등과 관광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최대 관광송출 시장인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상 근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교통기반시설의 미비로 주말 및 휴가철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객의 방문없이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주도 관광정책 제언

제주도의 입지상계수는 농림수산물, 관광산업, 광산업, 건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귤 중심의 농업과 관광산업의 특화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관광산업을 10개 세부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운수보조를 제외한 9개 부문의 입지상계수가 '1'보다 커 전국대비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도출된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승수를 살펴보면 전체 28개 산업 중 생산유발승수 6위, 소득유발승수 15위, 고용유발승수 13위, 부가가치유발승수 15위, 순간접세유발승수 7위, 수입유발승수 14위로 나타났다. 생산·소득·부가가치·순간접세유발승수는 모두 제주도 전산업 평균 이상이고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도 모두 '1'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고용유발승수는 제주도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유발승수도 전산업 평균보다 낮아 관광산업의 외부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25.5%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의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각종 지수 분석결과 관광산업은 효율성지수 6위, 산업구조지수 1위, 종합지수 1위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제주도 전략산업은 관광산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건설, 금융 및 보험,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 제품, 기타부문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듯이 제주도의 지역적·자원적 특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광산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관광객 수 정체, 관광상품 경쟁력 저하,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부진 및 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노동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해외여행 자율화, 국제 교통여건 개선, 관광행태 변화 등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제주도가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시장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도 관광상품은 국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이기에 때문에 관광객의 소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로 관광개발 및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주

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집행율은 높으나 민간부문 집행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수산물 등 제주도의 특화산업들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내 산업간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 분석 결과 관광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노동생산성은 낮으나 임금 등 노동단가는 높아 노동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노동력 확보 및 지속적인 업무 교육으로 노동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 지역 경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분석이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승수 및 계수의 지역간·산업간 비교·분석,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지역 전략산업 선정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승수를 도출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자료를 도출해 냈다. 또한 2000년 연구대상지역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측정하여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각 지역의 전략산업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부문 정책입안자에게 관광산업의 규모 및 타 산업과의 상호 연관정도, 정책집행(예산투입)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의 중요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관광산업 분류의 적합성, 통계자료의 신뢰성, 각종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 몇 가지 한계점을 갖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사항이다.

첫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광산업 분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분류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WTO)의 관광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협의회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관광산업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한 관광산업 분류에 대해 완벽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명확한 관광산업의 범위와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 통계자료도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과 관련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사의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종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관광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단위의 관광관련 통계자료도 생산되어야 한다. 지역의 관광통계 생산은 기계식 교통량 조사에 의한 관광객수 집계를 통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또한 관광객 지출액 부문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에서 관광객 지출액에 의한 경제효과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IMPLAN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유발승수 및 계수의 분석과 함께 효율성지수, 산업구조지수, 종합지수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아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상황으로 정책입안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지표현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해 보았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위성계정

은 기존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없었던 관광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이다. 이러한 관광위성계정은 국민경제 내에서 관광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수립,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학문적 연구, 기업의 사업전략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관광위성계정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관광연구원(2000)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원개발연구원 (2000). 『강원지역 산업연관분석 연구』 .
- 김규호·김사헌 (1998).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1): 151-171.
- 고영구 (1996).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충북 청주과학산업단지  
의 개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표 (2000).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과 경남경제 분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보 (1990).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망: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호언 (1986). 투입-산출모형에 의한 지역경제 구조분석: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남개발연구원 (1994). 『경남의 산업연관모형개발』 .
- 교통개발연구원 (1992). 『관광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 국토개발연구원 (1986). 『지역간 투자효율분석: 지역유형별 공업특성 및 지역과급효과』 .
- 권경상 (1994). 한국관광산업의 비교우위성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전광역시 (2001). 『대전지역 산업연관분석』 .
- 이강욱 (1997).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한국관광연구원.
- 이강욱·류광훈 (1999).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한국관광연구원.
- 이충기 (1999).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  
관(Input-Output)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73-92.
- 이충기·박창규 (1996). 한국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19(2): 27-45.
- 윤영선·안정화 (1993). 『건설활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지역산업 연관분석  
I』 . 국토개발연구원.
- 정의선 (1995). 영동지역 관광유치산업의 구조분석. 『관광학연구』, 19(1): 179-197.
- 정준무 (1994). 관광개발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산업연관  
모형의 개발과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광익·임재영 (2001). MRIO모형과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4(3): 209-229.
- 제주도 (각년도). 『제주 통계연보』.
- 제주발전연구원 (1999).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 충북개발연구원 (2000).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충북지역 산업구조분석: IT·BT산업을 중심으로』.
- 최승묵·김남조 (2002). 관광비와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지역간 연관분석. 『관광학연구』, 25(4): 143-160.
- 통계청 (2002a).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통계청 (2002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2c).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2d).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2e).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3).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 하성균·허재완 (1990). 주택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25(1): 1045-1065.
- 한국개발연구원 (2000).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 한국관광공사 (1993).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 한국관광연구원 (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 (2001). 『강원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과제』.
- Archer, B. (1995). Importance of tourism for the economy of Bermu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4), 918-930.
- Andrew, B. (1997). Tourism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rnwal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3), 721-735.
- Deepak, C., Erin, S. and Frederick, W. C. (2003). The significance of festivals to rural economies: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scottish highland games in North Caroli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4), 421-427.
- Fletcher, J. E. (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 Tourism Research*, 16, 514-529.
- Heng, T. M. and Low, L. (1990).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246-269.
- Hurley, A., Archer, B. and Fletcher, J. (1994). The economic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grants for tourism in the Republic of Ireland. *Tourism Management*, 15(3), 203-211.
- Jie, Z. (2002). Tourism impact analysis for Danish regions. *Tourism Economics*, 8(2), 165-188.
- Johnson, R. L. and Moore, E. (1993). Tourism impact estimatio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2), 279-288.
- Johnson, R. L., Obermiller, F. and Radke, H. (1989).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s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2), 140-154.
- Khan, H. and Seng, C. F. (1990). Tourism multiplier effects on Singapor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408-418.
- Larry, D., Peter, F., Ray, S. and Thiep, V. (2003). Tourism's contribution to a state economy: a multi-region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ourism Economics*, 9(4), 431-448.
- Lee, C. K. (1992).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inbound tourism on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its distributional effects on income classes*. Ph. 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 Lee, C. K. and Kwon, K. S. (1995). Importance of secondary impact of foreign tourism receipts on the South Korean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2), 50-54.
- Lee, C. K. and Kwon, K. S. (1997). The economic impact of the casino industry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1), 52-58.
- Ruiz, A. L. (1985). Tourism and the economy of Puerto Rico : an input-output approach. *Tourism Management*, 6(1), 61-65.
- Smith, S. L. J. (1988).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79-190.
- United Nations. (1990). *Guidelines on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Vaughan, D. R., Farr, H. and Slee, R. W. (2000). Estimating and interpreting the local economic benefits of visitor spending: an explanation. *Leisure Studies*, 19(2), 95-118.



## Abstract

###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Regional Tourism Industry: The Case of Gangwon and Jeju Region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rstly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dustry on a regional basis, based on an input-output analysis; secondly to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ourism sector and other sectors by examining multiplier effects of each industry; and thirdly to identify a strategic industry of regional development plan.

Gangwon and Jeju regions are select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ourism industries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plier effects of output, employment, income, value added between the tourism sector and other sectors, together with regional economic effect with non-resident tourism expenditure and classification of key industries by development of a composite index.

Overall, the multiplier effects in tourism sector for both Gangwon and Jeju regions a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The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has shown 11.3% to GRDP in Gangwon region and 25.5% to GRDP in Jeju region by non-resident tourists' expenditur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mposite index, key leading industries for Gangwon region are ranked as tourism industry, construction, social and other services, food beverages and tobacco,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ctor, whereas Jeju region tourism industry, social and other services, construction, finance and insuranc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etc.

This study has proven that tourism industry is important to the local economy as a strategic indu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ourism industry be promoted by taking into characteristics of regional tourism resources accounts.

<부록> 산업연관분석 결과

<부록표 1> 전국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37부문)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1. 농림수산물	1.643640	23	0.171607	35	0.067719	1
2. 광산품	1.595032	26	0.313359	24	0.012065	28
3. 음식료품	2.106431	7	0.215814	32	0.035885	8
4. 섬유 및 가죽제품	2.070134	8	0.335365	17	0.021438	15
5. 목재 및 종이제품	1.947457	16	0.255429	29	0.014656	25
6. 인쇄, 출판 및 복제	2.232723	3	0.403617	11	0.024890	12
7. 석유 및 석탄제품	1.137026	37	0.044933	37	0.001377	37
8. 화학제품	2.024156	10	0.241030	30	0.011264	30
9. 비금속광물제품	2.026427	9	0.327371	20	0.014498	26
10. 제1차 금속	2.195221	4	0.202528	33	0.007690	34
11. 금속제품	2.152687	5	0.345203	16	0.018375	21
12. 일반기계	2.141935	6	0.323175	22	0.015951	23
13. 전기 및 전자기기	1.712327	19	0.200408	34	0.009916	32
14. 정밀기기	2.012946	12	0.323470	21	0.018844	19
15. 수송장비	2.363750	2	0.319359	23	0.014019	2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91316	14	0.333224	18	0.022362	14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500100	31	0.153869	36	0.005668	36
18. 건설	1.995537	13	0.424767	8	0.020782	16
19. 도소매	1.476819	33	0.371401	12	0.035946	7
20. 운수 및 보관	1.710403	20	0.460444	5	0.023944	13
21. 통신 및 방송	1.667469	22	0.329643	19	0.009626	33
22. 금융 및 보험	1.486683	32	0.506024	3	0.015907	2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74615	34	0.264457	28	0.010824	31
24. 공공행정 및 국방	1.523670	30	0.564969	2	0.020689	17
25. 교육 및 보건	1.564408	29	0.649759	1	0.026688	11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961604	15	0.415765	10	0.046313	4
27. 기타	2.560933	1	0.268480	27	0.032225	9
28-1. 숙박	1.569644	28	0.422209	9	0.038346	6
28-2. 식음료	2.018380	11	0.360286	13	0.051204	3
28-3. 여객운송	1.465506	35	0.271619	26	0.019104	18
28-4. 운수보조	1.286126	36	0.311675	25	0.006880	35
28-5. 차량임대	1.676418	21	0.233572	31	0.011601	29
28-6. 여행업	1.575402	27	0.471912	4	0.015992	22
28-7. 문화공연	1.814506	17	0.454884	6	0.018390	20
28-8. 운동·경기	1.631582	24	0.357188	14	0.027600	10
28-9. 오락·유흥	1.752862	18	0.425305	7	0.046134	5
28-10. 소매	1.612312	25	0.351674	15	0.055992	2
관광산업 평균(28-1 ~ 28-10)	1.640274		0.366032		0.029124	
전산업 평균(1 ~ 28-10)	1.802113		0.335832		0.022995	

## &lt;부록표 2&gt; 전국 산업별 부가가치 · 순간접세 · 수입유발승수(37부문)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893371	13	0.044801	25	0.106629	25
2. 광산품	0.900385	10	0.038519	30	0.099615	28
3. 음식료품	0.806080	21	0.133340	3	0.193920	17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6088	29	0.039592	28	0.313912	9
5. 목재 및 종이제품	0.619224	33	0.035629	31	0.380776	5
6. 인쇄, 출판 및 복제	0.784952	22	0.045436	24	0.215048	16
7. 석유 및 석탄제품	0.384845	37	0.228906	2	0.615155	1
8. 화학제품	0.620895	32	0.046005	23	0.379105	6
9. 비금속광물제품	0.782963	23	0.048741	21	0.217037	15
10. 제1차 금속	0.582406	34	0.030959	33	0.417594	4
11. 금속제품	0.721879	24	0.032456	32	0.278121	14
12. 일반기계	0.705191	26	0.056744	16	0.294809	12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41329	35	0.028448	34	0.458671	3
14. 정밀기기	0.661901	31	0.051538	18	0.338099	7
15. 수송장비	0.694465	28	0.074885	11	0.305535	10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10696	25	0.046551	22	0.289304	13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75084	30	0.056656	17	0.324916	8
18. 건설	0.837169	18	0.067187	14	0.162831	20
19. 도소매	0.885009	15	0.050958	19	0.114991	23
20. 운수 및 보관	0.833088	20	0.080000	7	0.166912	18
21. 통신 및 방송	0.895204	12	0.075637	10	0.104796	26
22. 금융 및 보험	0.947941	3	0.086156	6	0.052059	35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50016	2	0.095904	5	0.049984	36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85546	14	0.021312	37	0.114454	24
25. 교육 및 보건	0.896884	11	0.024344	35	0.103116	27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862563	17	0.077086	9	0.137437	21
27. 기타	0.701295	27	0.073894	12	0.298705	11
28-1. 숙박	0.904513	9	0.059978	15	0.095487	29
28-2. 식음료	0.833631	19	0.111642	4	0.166369	19
28-3. 여객운송	0.530759	36	0.050805	20	0.469241	2
28-4. 운수보조	0.955640	1	0.021552	36	0.044360	37
28-5. 차량임대	0.934993	4	0.040423	27	0.065007	34
28-6. 여행업	0.933803	5	0.039485	29	0.066197	33
28-7. 문화공연	0.866878	16	0.042278	26	0.133122	22
28-8. 운동·경기	0.918197	8	0.306985	1	0.081803	30
28-9. 오락·유희	0.918844	7	0.071260	13	0.081156	31
28-10. 소매	0.927839	6	0.079652	8	0.072161	32
관광산업 평균(28-1 ~ 28-10)	0.872510		0.082406		0.127490	
전산업 평균(1 ~ 28-10)	0.788961		0.067993		0.211039	

## &lt;부록표 3&gt; 전국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912063	23	1.123127	13
2. 광산품	0.885090	26	0.660943	28
3. 음식료품	1.168867	7	1.196701	9
4. 섬유 및 가죽제품	1.148726	8	0.908287	18
5. 목재 및 종이제품	1.080652	16	1.327209	7
6. 인쇄, 출판 및 복제	1.238947	3	0.805235	23
7. 석유 및 석탄제품	0.630941	37	1.505336	5
8. 화학제품	1.123212	10	2.087962	2
9. 비금속광물제품	1.124472	9	0.863216	21
10. 제1차 금속	1.218137	4	1.846623	3
11. 금속제품	1.194535	5	0.884945	19
12. 일반기계	1.188569	6	0.938322	16
13. 전기 및 전자기기	0.950177	19	1.125772	12
14. 정밀기기	1.116992	12	0.650572	30
15. 수송장비	1.311655	2	0.997047	1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104990	14	0.653091	29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832411	31	1.248996	8
18. 건설	1.107332	13	0.756253	24
19. 도소매	0.819493	33	0.938959	15
20. 운수 및 보관	0.949110	20	0.705889	27
21. 통신 및 방송	0.925286	22	1.165423	10
22. 금융 및 보험	0.824967	32	1.572408	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818270	34	2.264813	1
24. 공공행정 및 국방	0.845491	30	0.554904	37
25. 교육 및 보건	0.868096	29	0.874099	20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88502	15	0.632326	32
27. 기타	1.421072	1	1.393756	6
28-1. 숙박	0.871002	28	0.604553	33
28-2. 식음료	1.120007	11	1.144924	11
28-3. 여객운송	0.813215	35	0.737171	25
28-4. 운수보조	0.713677	36	0.640898	31
28-5. 차량임대	0.930251	21	0.918932	17
28-6. 여행업	0.874197	27	0.575705	34
28-7. 문화공연	1.006877	17	0.706291	26
28-8. 운동·경기	0.905372	24	0.564951	35
28-9. 오락·유희	0.972670	18	0.564235	36
28-10. 소매	0.894679	25	0.860127	22

&lt;부록표 4&gt; 강원도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37부문)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381746	13	0.163381	35	0.067005	1
2. 광산품	1.349901	16	0.336759	24	0.012165	28
3. 음식료품	1.817769	2	0.211553	32	0.035761	12
4. 섬유 및 가죽제품	1.269394	32	0.364766	20	0.028873	15
5. 목재 및 종이제품	1.315008	23	0.253982	28	0.024166	18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17761	11	0.521707	5	0.037410	10
7. 석유 및 석탄제품	1.057881	37	0.039845	37	0.006235	36
8. 화학제품	1.322440	21	0.245385	30	0.011540	29
9. 비금속광물제품	1.657375	4	0.371238	17	0.010583	31
10. 제1차 금속	1.242313	33	0.193108	33	0.004540	37
11. 금속제품	1.277944	30	0.430469	12	0.019321	22
12. 일반기계	1.285295	29	0.366968	19	0.014512	25
13. 전기 및 전자기기	1.218319	34	0.187826	34	0.012978	26
14. 정밀기기	1.440336	9	0.358996	21	0.008998	33
15. 수송장비	1.375428	15	0.353667	22	0.008814	3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319589	22	0.376110	16	0.028369	1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304152	26	0.156740	36	0.007899	35
18. 건설	1.412378	12	0.510760	7	0.014984	24
19. 도소매	1.301484	27	0.388494	13	0.058676	3
20. 운수 및 보관	1.333764	19	0.591321	3	0.056047	5
21. 통신 및 방송	1.496604	6	0.338267	23	0.010977	30
22. 금융 및 보험	1.348174	17	0.525911	4	0.024053	19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310578	24	0.268614	27	0.018514	23
24. 공공행정 및 국방	1.289484	28	0.604889	2	0.020861	21
25. 교육 및 보건	1.273653	31	0.722422	1	0.026871	17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432333	10	0.491076	9	0.058514	4
27. 기타	2.111687	1	0.247905	29	0.030406	14
28-1. 숙박	1.308386	25	0.465655	10	0.039122	9
28-2. 식음료	1.764389	3	0.386617	14	0.050195	6
28-3. 여객운송	1.194294	35	0.300440	26	0.035123	13
28-4. 운수보조	1.176199	36	0.320116	25	0.010156	32
28-5. 차량임대	1.454541	8	0.233490	31	0.012436	27
28-6. 여행업	1.327215	20	0.516388	6	0.042803	8
28-7. 문화공연	1.538634	5	0.500170	8	0.023523	20
28-8. 운동·경기	1.345435	18	0.380750	15	0.036239	11
28-9. 오락·유흥	1.478475	7	0.461924	11	0.064806	2
28-10. 소매	1.375497	14	0.370970	18	0.049753	7
관광산업 평균(28-1 ~ 28-10)	1.396307		0.393652		0.036416	
전산업 평균(1 ~ 28-10)	1.387185		0.366451		0.027655	

&lt;부록표 5&gt; 강원도 산업별 부가가치 · 순간접세 · 수입유발승수(37부문)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933725	13	0.035995	21	0.066275	25
2. 광산물	0.953534	7	0.020091	32	0.046466	31
3. 음식료품	0.827785	23	0.143059	3	0.172215	15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3139	29	0.026760	25	0.316861	9
5. 목재 및 종이제품	0.596730	33	0.022524	28	0.403270	5
6. 인쇄, 출판 및 복제	0.859580	20	0.034677	22	0.140420	18
7. 석유 및 석탄제품	0.377193	37	0.232431	2	0.622807	1
8. 화학제품	0.606923	32	0.021934	31	0.393077	6
9. 비금속광물제품	0.840767	22	0.022923	27	0.159233	16
10. 제1차 금속	0.556741	34	0.011644	36	0.443259	4
11. 금속제품	0.788470	24	0.019046	33	0.211530	14
12. 일반기계	0.736488	25	0.059992	14	0.263512	1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12153	36	0.022086	30	0.487847	2
14. 정밀기기	0.659147	31	0.051752	15	0.340853	7
15. 수송장비	0.710005	27	0.090465	6	0.289995	11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31951	26	0.039725	20	0.268049	1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94865	28	0.044169	17	0.305135	10
18. 건설	0.909319	15	0.069636	11	0.090681	23
19. 도소매	0.898824	18	0.042826	19	0.101176	20
20. 운수 및 보관	0.955379	6	0.043644	18	0.044621	32
21. 통신 및 방송	0.906174	17	0.073746	9	0.093826	21
22. 금융 및 보험	0.957126	4	0.084991	7	0.042874	3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65920	2	0.096202	5	0.034080	36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08864	16	0.011334	37	0.091136	22
25. 교육 및 보건	0.934645	12	0.014189	35	0.065355	26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921296	14	0.073384	10	0.078704	24
27. 기타	0.670055	30	0.065749	12	0.329945	8
28-1. 숙박	0.950305	8	0.048701	16	0.049695	30
28-2. 식음료	0.856031	21	0.112463	4	0.143969	17
28-3. 여객운송	0.528900	35	0.022349	29	0.471100	3
28-4. 운수보조	0.976340	1	0.014431	34	0.023660	37
28-5. 차량임대	0.960990	3	0.029155	24	0.039010	35
28-6. 여행업	0.955703	5	0.026257	26	0.044297	33
28-7. 문화공연	0.892026	19	0.030492	23	0.107974	19
28-8. 운동·경기	0.939063	10	0.353977	1	0.060937	28
28-9. 오락·유희	0.935088	11	0.065268	13	0.064912	27
28-10. 소매	0.947964	9	0.074859	8	0.052036	29
관광산업 평균(28-1 ~ 28-10)	0.894241		0.077795		0.105759	
전산업 평균(1 ~ 28-10)	0.811871		0.060890		0.188129	

&lt;부록표 6&gt; 강원도 산업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996079	13	1.428082	5
2. 광산품	0.973122	16	0.840640	21
3. 음식료품	1.310401	2	1.510440	3
4. 섬유 및 가죽제품	0.915086	32	0.757762	32
5. 목재 및 종이제품	0.947969	23	0.888027	18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22041	11	0.786119	28
7. 석유 및 석탄제품	0.762610	37	0.733640	33
8. 화학제품	0.953326	21	1.039088	13
9. 비금속광물제품	1.194776	4	1.055317	10
10. 제1차 금속	0.895564	33	0.830386	23
11. 금속제품	0.921250	30	0.833975	22
12. 일반기계	0.926549	29	0.791648	26
13. 전기 및 전자기기	0.878267	34	0.785545	29
14. 정밀기기	1.038315	9	0.828764	24
15. 수송장비	0.991524	15	0.911110	16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951271	22	0.772455	3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940142	26	1.394138	8
18. 건설	1.018161	12	0.895066	17
19. 도소매	0.938219	27	1.041917	12
20. 운수 및 보관	0.961489	19	0.787603	27
21. 통신 및 방송	1.078879	6	1.400754	7
22. 금융 및 보험	0.971877	17	1.748453	1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44775	24	1.497595	4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29569	28	0.720884	37
25. 교육 및 보건	0.918156	31	1.033437	14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32546	10	0.805299	25
27. 기타	1.522282	1	1.637191	2
28-1. 숙박	0.943195	25	0.779205	30
28-2. 식음료	1.271920	3	1.413958	6
28-3. 여객운송	0.860948	35	0.867997	19
28-4. 운수보조	0.847903	36	0.863396	20
28-5. 차량임대	1.048556	8	1.140093	9
28-6. 여행업	0.956769	20	0.731182	36
28-7. 문화공연	1.109177	5	0.934966	15
28-8. 운동·경기	0.969903	18	0.733486	34
28-9. 오락·유흥	1.065809	7	0.731845	35
28-10. 소매	0.991574	14	1.048533	11

&lt;부록표 7&gt; 제주도 산업별 생산·소득·고용유발승수(37부문)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341271	13	0.160814	35	0.066982	6
2. 광산물	1.302625	17	0.339203	23	0.009134	37
3. 음식료품	1.774104	2	0.210305	32	0.037153	19
4. 섬유 및 가죽제품	1.193497	29	0.369075	20	0.105088	4
5. 목재 및 종이제품	1.295044	18	0.255140	28	0.019675	27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28967	8	0.521300	6	0.038325	18
7. 섬유 및 석탄제품	1.048017	37	0.038524	37	0.056818	7
8. 화학제품	1.226595	27	0.244712	29	0.015588	31
9. 비금속광물제품	1.607532	4	0.376514	17	0.014924	32
10. 제1차 금속	1.155862	33	0.192130	33	0.043211	16
11. 금속제품	1.182053	30	0.442841	12	0.041766	17
12. 일반기계	1.178109	31	0.371650	19	0.026943	23
13. 전기 및 전자기기	1.167676	32	0.185873	34	0.056240	8
14. 정밀기기	1.279179	21	0.361469	21	0.054897	10
15. 수송장비	1.152376	35	0.356358	22	0.052239	11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254191	24	0.381107	16	0.151360	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242093	25	0.154641	36	0.009809	35
18. 건설	1.349662	11	0.521737	5	0.018720	28
19. 도소매	1.289370	20	0.389162	14	0.051673	12
20. 운수 및 보관	1.219789	28	0.623626	2	0.044384	15
21. 통신 및 방송	1.447255	6	0.338910	24	0.010795	34
22. 금융 및 보험	1.339895	14	0.526867	4	0.026383	24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294829	19	0.269989	27	0.016469	29
24. 공공행정 및 국방	1.256717	23	0.611695	3	0.024672	26
25. 교육 및 보건	1.232518	26	0.737290	1	0.030378	20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357402	10	0.503651	9	0.056067	9
27. 기타	2.043517	1	0.243937	30	0.029879	22
28-1. 숙박	1.266305	22	0.473739	10	0.029936	21
28-2. 식음료	1.706735	3	0.393933	13	0.047529	14
28-3. 여객운송	1.143215	36	0.302074	26	0.050354	13
28-4. 운수보조	1.155583	34	0.320583	25	0.198678	1
28-5. 차량임대	1.427130	9	0.231995	31	0.011904	33
28-6. 여행업	1.309458	16	0.518472	7	0.025992	25
28-7. 문화공연	1.478783	5	0.506868	8	0.016253	30
28-8. 운동·경기	1.319787	15	0.383482	15	0.009735	36
28-9. 오락·유희	1.444631	7	0.465235	11	0.111044	3
28-10. 소매	1.345539	12	0.373352	18	0.075860	5
관광산업 평균(28-1 ~ 28-10)	1.359717		0.396973		0.057728	
전산업 평균(1 ~ 28-10)	1.331279		0.370223		0.045591	



&lt;부록표 8&gt; 제주도 산업의 부가가치 · 순간접세 · 수입 승수(37부문)

구분	부가가치유발승수		순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순위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0.940328	12	0.035212	21	0.059672	26
2. 광산물	0.960306	5	0.018724	32	0.039694	33
3. 음식료품	0.830552	23	0.145644	3	0.169448	15
4. 섬유 및 가죽제품	0.683241	29	0.026425	25	0.316759	9
5. 목재 및 종이제품	0.595036	33	0.022135	27	0.404964	5
6. 인쇄, 출판 및 복제	0.858217	21	0.034559	22	0.141783	17
7. 섬유 및 석탄제품	0.375105	37	0.233661	2	0.624895	1
8. 화학제품	0.602916	32	0.021012	31	0.397084	6
9. 비금속광물제품	0.845196	22	0.021661	29	0.154804	16
10. 제1차 금속	0.552571	34	0.010741	36	0.447429	4
11. 금속제품	0.797824	24	0.018529	33	0.202176	14
12. 일반기계	0.740528	25	0.061788	14	0.259472	1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508661	36	0.021773	28	0.491339	2
14. 정밀기기	0.655170	31	0.053065	15	0.344830	7
15. 수송장비	0.709957	27	0.094792	6	0.290043	11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34241	26	0.040226	20	0.265759	1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694917	28	0.044041	18	0.305083	10
18. 건설	0.920559	15	0.071791	11	0.079441	23
19. 도소매	0.897108	18	0.042650	19	0.102892	20
20. 운수 및 보관	0.963146	4	0.044083	17	0.036854	34
21. 통신 및 방송	0.908148	17	0.074079	9	0.091852	21
22. 금융 및 보험	0.956666	7	0.084978	7	0.043334	31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67878	2	0.096556	5	0.032122	36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12430	16	0.009955	37	0.087570	22
25. 교육 및 보건	0.943452	10	0.013429	35	0.056548	28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935155	14	0.073681	10	0.064845	24
27. 기타	0.661120	30	0.064949	13	0.338880	8
28-1. 숙박	0.957741	6	0.048653	16	0.042259	32
28-2. 식음료	0.859573	20	0.113262	4	0.140427	18
28-3. 여객운송	0.513467	35	0.021286	30	0.486533	3
28-4. 운수보조	0.978646	1	0.013844	34	0.021354	37
28-5. 차량임대	0.963308	3	0.028554	24	0.036692	35
28-6. 여행업	0.954844	8	0.025922	26	0.045156	30
28-7. 문화공연	0.896551	19	0.029766	23	0.103449	19
28-8. 운동·경기	0.943328	11	0.359477	1	0.056672	27
28-9. 오락·유희	0.938305	13	0.065457	12	0.061695	25
28-10. 소매	0.950715	9	0.075197	8	0.049285	29
관광산업 평균(28-1 ~ 28-10)	0.895648		0.078142		0.104352	
전산업 평균(1 ~ 28-10)	0.813700		0.061123		0.186300	

&lt;부록표 9&gt; 제주도 산업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순위		순위
1. 농림수산물	1.007506	13	1.463894	5
2. 광산품	0.978477	17	0.872799	18
3. 음식료품	1.332632	2	1.512406	4
4. 섬유 및 가죽제품	0.896504	29	0.754824	32
5. 목재 및 종이제품	0.972782	18	0.955264	14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73379	8	0.862078	19
7. 섬유 및 석탄제품	0.787226	37	0.751533	36
8. 화학제품	0.921366	27	0.831758	21
9. 비금속광물제품	1.207510	4	1.089617	11
10. 제1차 금속	0.868234	33	0.755589	30
11. 금속제품	0.887908	30	0.783888	24
12. 일반기계	0.884946	31	0.757436	28
13. 전기 및 전자기기	0.877108	32	0.753116	33
14. 정밀기기	0.960865	21	0.752079	35
15. 수송장비	0.865616	35	0.752508	34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942095	24	0.756086	29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933007	25	1.215186	8
18. 건설	1.013809	11	0.924883	17
19. 도소매	0.968520	20	1.116307	10
20. 운수 및 보관	0.916254	28	0.817777	22
21. 통신 및 방송	1.087117	6	1.353312	7
22. 금융 및 보험	1.006472	14	1.785646	1
2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972621	19	1.578104	3
24. 공공행정 및 국방	0.943992	23	0.751157	37
25. 교육 및 보건	0.925815	26	1.051627	13
2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19622	10	0.837008	20
27. 기타	1.535003	1	1.679320	2
28-1. 숙박	0.951195	22	0.810979	23
28-2. 식음료	1.282027	3	1.462065	6
28-3. 여객운송	0.858734	36	0.948935	15
28-4. 운수보조	0.868025	34	0.755377	31
28-5. 차량임대	1.071999	9	1.180604	9
28-6. 여행업	0.983609	16	0.777245	25
28-7. 문화공연	1.110799	5	0.942995	16
28-8. 운동·경기	0.991368	15	0.764220	26
28-9. 오락·유흥	1.085146	7	0.762400	27
28-10. 소매	1.010712	12	1.079978	12

---

저자약력

---

이강욱(李康旭)

La Trobe University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묵(崔升默)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관광학 석사)

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

발행인 이영욱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인쇄일 2003년 12월 29일

발행일 2003년 12월 30일

인쇄인 라인피아

---